

#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 보고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2012. 08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차례

요약과 우리의 요구

<b>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b> .....	<b>4</b>
<b>2장 한국의 헌법상·국제법상 의무</b> .....	<b>8</b>
<b>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b> .....	<b>9</b>
<b>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b> .....	<b>11</b>
4.1 UN가입 이전 .....	11
4.2 UN에서 행사한 표결 내용 .....	12
4.3 분리장벽·정착촌·가자Gaza에 대한 입장 .....	14
<b>5장 점령·식민화·인종차별 지원</b> .....	<b>16</b>
5.1 BDS 캠페인 .....	16
5.2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	17
5.3 이스라엘 군수 산업과의 협력 .....	18
5.4 점령에의 연루 .....	19
5.5 점령에 연루된 학술 기관과의 교류 .....	21
<b>6장 한국 기업들</b> .....	<b>22</b>
6.1 이스라엘 인프라 구축 개발에 협력·공헌하는 기업들 .....	22
6.2 이스라엘의 군수산업과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 .....	23
6.3 점령에 연루된 기업 .....	26
6.4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한국 내 유통 상황 .....	27
<b>7장 군사 교류</b> .....	<b>29</b>
7.1 냉전 체제 아래서의 양국 군사 교류 .....	29
7.2 오슬로 협정 이후 급속히 강화된 양국 군사 교류 .....	30
7.3 구체적인 무기거래 .....	31
<b>8장 경제 관계</b> .....	<b>33</b>
8.1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	33
8.2 공동 투자 기금 .....	34
8.3 한-이 FTA .....	34
<b>9장 학술 교류</b> .....	<b>36</b>
9.1 테크니온의 점령·식민화·인종 차별에의 공모 .....	36
9.2 테크니온과 카이스트KAIST .....	39
<b>10장 성지 순례</b> .....	<b>40</b>
10.1 성지 발굴 .....	40
10.2 베들레헴 기독교인 말살 정책 .....	40
10.3 이스라엘 관광 산업과 한국인 성지 순례 .....	42
10.4 대한항공, 이스라엘 취항으로 성지순례 완성 .....	43
10.5 성지 순례 유치 .....	43

[이미지 출처]

# 요약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경제적·군사적·학술적·문화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드러난다.

-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
- 민간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양국 정부의 다자 협정 체결 및 공동 연구개발기금 설립
- 양국 정부와 민간에서의 무기 거래

양국의 관계는 다음의 이유로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 곧 체결될 예정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 학술 교류 증진
- 한국의 군사 예산 증가와 미국 이외의 무기 공급처 모색 시도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은 경제적·군사적·학문적 관계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식민화, 인종 차별 정책에 공모하게 만든다. 이런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업과 기관들에게 이익이 된다.

- 분리장벽, 검문소, 점령 기반 시설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유지하는 기업
- 이스라엘 군사 부문을 강화하는 기업

경제적·학술적 교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적이고 공공연히 규탄받는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교류는 다음과 모순된다.

-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
- 식민 통치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 한국이 UN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보여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자세

## 우리의 요구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BDS(5장 참고) 요청에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

- 정착촌, 분리장벽, 점령 자체와 관련된 모든 생산과 서비스를 즉각 금지하라.
- 정부 차원의 모든 교역 및 연구 투자 진흥을 중단하라.
- 진행 중인 모든 협상, 특히 무역·투자·군사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과 학술계에 요구한다.

- 분리장벽, 정착촌, 점령 자체와 관련된 기업·기관과의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대·기업과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단교는 이스라엘이

1.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장벽을 해체할 때까지
2.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승인할 때까지
3. UN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이 귀향할 권리와 몰수당한 재산을 배상 받을 권리를 존중·보호·촉진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이스라엘과 한국의 초기 교류는 한국 전쟁(1950~1953) 중에 이뤄졌다. 양국 모두 독립을 선언한 1948년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한국’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스라엘 연립 정부의 일부는 북한을, 일부는 남한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냉전 외교 정책을 따르게 되고, 결국 남한을 지지하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직후 외교부의 극동 문제 부국장 야코브 시모니 Yaacov Shimoni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모세 샤렛 Moshe Sharret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시모니 부국장은 억압적이고 부패한 남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지지할 것을 제안하는데,<sup>1</sup> 당시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연합 정권을 구성한 두 정당 마팜 Mapam당과 마키 Maki당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지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남한을 지지하는 것에는 반대했다.<sup>2</sup> 그러나 이스라엘 수상 다비드 벤-구리온 David Ben-Gurion은 미국과 남한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군대를 파병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1950년 7월 4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셋, Knesset)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68대 20으로 미국과 남한을 지지하기로 결정되었다.<sup>3</sup> 이 결정에 마팜당이 맹렬히 반대해 많은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당시 수상 벤-구리온은 남한에 군대를 파견하고 싶어 했지만 너무 극단적이며 이스라엘 국방비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다. 그 대신 국제 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을 통해 63,000달러어치의 약품과 36,000달러어치 식량을 남한에 공급했다.<sup>4</sup> 마팜당과 마키당은 처음에는 이러한 원조 역시 반대했으나 결국에는 이에 동의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의 개입은 매우 소규모로만 이루어졌지만, 이는 이스라엘 외교 정책이 중립 유지에서 미국의 냉전 체제 동참으로 변하게 된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한국 전쟁 중에도, 그리고 종전 후에도 남한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현안들이 많았다. 실제로 1960년대 이전까지 중동 지역과 남한은 정치적·경제적 이해 관계가 없었다.<sup>5</sup> 1960년대 들어 남한이 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승인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한과 북한은 정당성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합법적인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 경쟁하던<sup>6</sup> 양국은 가능한 많은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 남한은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국가들과, 북한은 예멘, 시리아와 같은 친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구

1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2 마영삼 “Israel’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http://israelcfr.com/documents/4-3/4-3-6-YoungSamMa.pdf> (방문일: 2011/09/16)

3 American Jewish Committee “American Jewish Year Vol.53, 1952: Israel” [http://www.ajcarchives.org/AJC\\_DATA/Files/1952\\_15\\_Israel.pdf](http://www.ajcarchives.org/AJC_DATA/Files/1952_15_Israel.pdf) (방문일: 2011/09/16)

4 마영삼 “Israel’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http://israelcfr.com/documents/4-3/4-3-6-YoungSamMa.pdf> (방문일: 2011/09/16)

5 Alon Leikowitz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ddle East: Economics, Diplomacy, and 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5 (2010): 2

6 남한은 남한 정권을 부패한 괴뢰 정권이라 부르는 북한과 경쟁해야 했고,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건국을 선포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인종 청소하는 정책에 착수했다. 이스라엘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과 정당성 경쟁을 치렀다.

축했다.<sup>7</sup>

한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외교 관계를 구축한 것은 1962년이었고, 이스라엘은 1964년에 서울에 대사관을 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근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스라엘과 공식적 승인 등의 관계를 맺으면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얻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자제하는 한국의 정책은 오슬로 협정 Oslo Accords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박정희 정권이 통치하던 한국과 중동의 이해관계를 증가시켰다. 경제 발전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은 아랍 지역에 확산되던 이스라엘 거래 기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에 주의하게 되고, 그 결과 중동과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당시 한국과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관계가 한국의 경제적 기회주의로만 점철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 지지를 표명하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하 PLO)를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합법 기구로 승인했으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4장 참조).<sup>8</sup>

1978년 2월, 양국 간 교역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의 팔레스타인 지지로 외교적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이스라엘에 한국 대사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지만 또 거절당한다. 2개월 후 이스라엘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주한 대사관을 철수시킨다. 그후 이스라엘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한 대사관은 1992년에야 다시 설치된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이스라엘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진출은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후 20여 년 동

안 한국 기업들과 이스라엘 기업들의 교역은 급속히 성장해 왔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다. 이스라엘이 철수 14년만에 다시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주한 대사관을 설치한 것이다. 그전까지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아랍 연맹' Arab League Boycott of Israel에 협력하면서 아랍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1973년과 1981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4장 1절 참조) 한국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걸프 전쟁의 여파로 아랍 산유 국가들의 경제가 황폐화되었다. 산유국들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둘째, 1991년 한국이 UN의 회원국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얻으려는 북한과의 경쟁을 끝낸 남한으로서는 이전처럼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셋째,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시오니스트 로비스트들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아랍 연맹'에 협력하는 국가와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이 로비스트들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한 뒤로 입김이 더욱 세졌다). 일례로 1992년 7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유럽 및 중동 소위원회와 국제경제정책 및 무역 소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서 “한국 기업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의원들은 한국 회사들이 아랍측 보이콧에 동조하고 있는 증거로서 삼성그룹의 두 회사가 지난 90년 코리아 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스라엘에 지점을 개설했다는 소문을 부인하고 ‘우리는 결코 아랍측 제재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sup>9</sup> 추측컨대 한국 정부 또한 당시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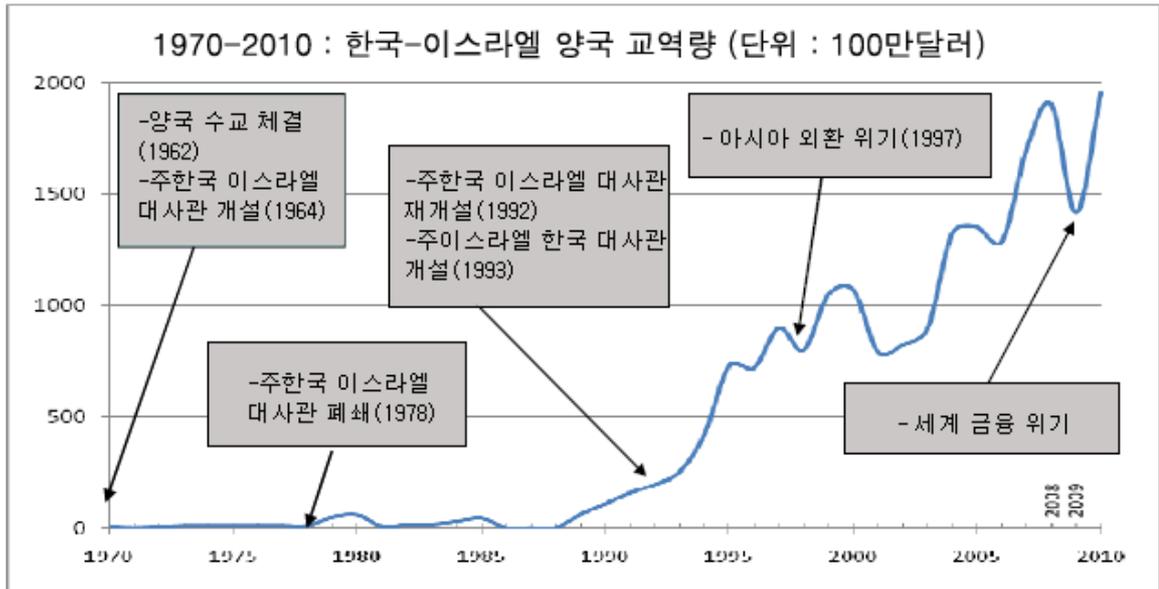
경제 사정의 변화로 아랍의 보이콧 운동에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점, UN 회원국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7 Alon Leikowitz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ddle East: Economics, Diplomacy, and 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5 (2010): 2

8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9 연합뉴스 (1992/07/10) “[박스]三星, 金星 아랍측무역제재 동조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577547> (방문일: 2011/09/16)

## 한-이 양국 교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9)
수출	501	578	851	850	746	970	1,011	729	724
수입	322	318	477	504	542	737	895	691	568
합계	823	896	1,328	1,354	1,288	1,707	1,906	1,420	1,392

취득한 점,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점 등으로 인해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달리하게 되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설치 1년 후인 1993년에는 한국도 최초로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촉진할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게다가 한국의 민간 부문이 이스라엘 시장에 신속히 진출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는 보이콧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에 공동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위의 표<sup>10</sup>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교역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들어 눈에 띄게 교역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오슬로 협정 체결 시기와 맞물리며 양국이 서로 대사관을 설

치한 시기와의 일치한다. 또한 이 표를 통해 2008년에 이명박 정권(2008~2013)이 들어선 후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더욱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가자 Gaza 구호선단을 공격해 9명의 활동가를 사살한 직후,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Simon Peres의 방한을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는 구호선단 승선 활동가들에 대한 학살에 분노한 대중을 의식해 페레스 방한을 격하시켰으나<sup>11</sup> 취소하지는 않았다. 방한 기간 동안 페레스는 이명박 대통령과 양국의 교류 증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sup>12</sup>

2011년 초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10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http://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ost> (방문일: 2011/09/16)

11 Ravid, B “South Korea downgrades President Shimon Peres’ visit following flotilla debacle”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news/south-korea-downgrades-president-shimon-peres-visit-to-working-status-following-flotilla-debacle-1.294571> (방문일: 2011/09/16)

12 Jerusalem Post “Peres on working visit in South Korea” <http://www.jpost.com/Israel/Article.aspx?id=177836> (방문일: 2011/09/16)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예루살렘 포스트』 Jerusalem Post지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안보와 평화의 문제, 재생 가능 에너지, 과학과 기술, 쌍무 무역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강화하길 원한다”.<sup>13</sup>

현재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한 사안도 없지만, FTA가 체결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한국의 57번째 수출국이고, 한국은 이스라엘의 15번째 수출국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44번째 수입국이며, 한국은 이스라엘의 14번째 수입국이다.<sup>14</sup>

FTA와 쌍무 무역을 위한 협상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본 보고서를 읽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

13 Cashman, G.F. “South Korea sees Israel as Partner in Security and Peace” <http://www.jpost.com/DiplomacyAndPolitics/Article.aspx?id=213098> (방문일: 2011/09/16)

14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http://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ost...> (방문일: 2011/09/16)

## 2장 한국의 헌법상·국제법상 의무

한국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 헌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 1991년 이후 UN 총회 기구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국제법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한국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의 49조는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동 조항은 “점령국은 점령당하는 지역의 민간인들을 추방하거나 강제이주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5</sup>

49조는 이스라엘에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환기되어 왔다. 점령지에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4차 제네바협약 위반임과 동시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는 데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 건설하는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4차 제네바협약 가입국은 이스라엘이 동 협약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준수하게 만들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sup>16</sup>

헌법에 선언된 원칙, UN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서 지는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이스라엘이 제네바협약 등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준수하게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한국은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의 경제적·군사적·학술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점령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15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http://www.icrc.org/ihl.nsf/FULL/380?OpenDocument> (방문일: 2011/09/05)

16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2004”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1/1677.pdf> (방문일: 2011/09/05)

###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의 배경에는 1923년 시작된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즉 대영제국(이하 영국)에 의한 식민 지배 성립이 있었다. 근대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는 같은 시기 조선이 겪었던 식민 지배와 연결되어 있다. 당시 팔레스타인과 조선을 식민지화한 두 제국 영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1902년 영국과 일본은 양국 간 권익을 조정하기 위해 군사동맹인 영일동맹을 맺는다. 이 동맹은 결과적으로 중국(당시 청나라)의 동북부 지역 및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제국주의 패권을 다투던 일본에 힘을 실어 주었다. 실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영일동맹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05년 8월에 개정된다(2차 영일동맹). 이를 통해 양국은 일본의 조선 '보호관'을 인정했으며, 두 나라의 동맹은 공수동맹(攻守同盟)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더욱 강화된 영국의 뒷받침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대로 일본도 영국을 뒷받침했다. 그 무대가 바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이었다. 일본은 1911년에 다시 개정한 3차 영일동맹을 근거 삼아 영국과 함께 연합국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북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참전했을 뿐이지만, 종전 후 영국을 비롯한 승전국들의 이권을 조정하기 위해 열린 몇 가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1920년 4월에 열린 산레모회의(San Remo conference)도 그중 하나였다.

이 회의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를 최종 결정할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등 일본의 중동학자들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6개국(영국, 프

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벨기에) 중 하나였던 일본은 이 위임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영국에 조력했다. 이타가키는 일본이 그러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과거 독일 식민지였던 남태평양 지역 섬들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sup>17</sup>

그러나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시기 일본은 1919년에 발발한 3·1 운동을 중심으로 조선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끈질긴 민중의 저항으로 식민 지배의 위기를 맞고 있던 일본은 비폭력 저항 운동인 3·1 운동을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표방하며 결성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이사국 지위를 얻으려 애쓰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국제연맹은 제국주의 국가들 위주로 구성될 참이었고, 일본은 국제연맹 이사국이 되어 국제적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일본이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라는 영국의 입장에 찬성표를 던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의 결과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한국이 극복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는 영토 분쟁, 전시 동원, 전시 성노예 제도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여전히 계속되

17 Itagaki, Yuzo. 大川周明が遺したもの 板垣雄三  
<http://wakame.econ.hit-u.ac.jp/~areastd/okawa/img/kokai/kokai.pdf>  
(방문일: 2011/09/05)

고 있는 것도 과거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현실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 건국의 전사前史인 서구의 중동 분할과 지배를 불식시키지 못한 정치적 문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끄는 서구 제국들은 식민 지배를 청산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같은 직접적인 식민 지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종주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새로운 형태로 팔레스타인 및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관철시키고 있다.

한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6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식민지의 잔재를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또한 이스라엘에 의한 억압과 지배를 여전히 겪고 있다. 20세기 초 식민 지배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팔레스타인과 조선의 식민화 역사의 밀접함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것은 식민주의의 뿌리를 극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또한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 4.1 UN가입 이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1973년이다. 1차 석유 파동이 한창이던 1973년 12월 15일 한국 정부는 「중동사태에 관한 4개 항목의 성명」(이하 「성명」)을 발표했다(원문은 한자).<sup>18</sup> 이하에서는 성명 내용 중 일부 항목만 열거해본다.

1. 국제적 분쟁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 ‘이스라엘’은 67년 전쟁 및 이번 전쟁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3.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주장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4.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독립과 평화로운 생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무렵 한국 정부는 1962년 4월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아랍연합공화국(현재의 이집트)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반발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성명」은 점령지 철수를 거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부인했던 팔레스

타인이라는 존재를 언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장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긍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성명」은 「정부, 중동정책 대전환」(『동아일보』 기사 제목. 원문은 한자)이라는 제호로 신문의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그 「성명」에 드러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입장은 ‘친-아랍’이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외교 60년』에서 이 「성명」의 영향으로 “한국은 오만, 카타르, 바레인, 수단, 모리타니 등 아랍 5개국과 수교를 맺었고, 사우디 아라비아 등 온건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달러로 부유해진 중동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에 초석을 놓았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9</sup>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지금의 이명박 정권조차 이 「성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서 보듯 당시 한국 정부가 펼친 정책의 본질은 석유와 중동 경제 진출을 위한 실리 외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친-팔레스타인 정책은, 개발 독재에 의해 경제우선주의가 석권한 1970~80년대 한국 외교의 기본 정책이었다. 산유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던 당시 아랍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친-아랍 정책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강에 힘썼다”.<sup>20</sup>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18 동아일보 (1973/12/17) “‘이스라엘 점령지 철수하라’ 친아랍 성명 발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121700209201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12-> (방문일: 2011/11/30)

19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년, 96쪽

2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년, 96쪽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에 참석한 노신영 외  
무부장관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서한을 발표했다.<sup>21</sup>

1. 팔레스타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자결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감을  
표명한다.
2. 모든 국제분쟁은 무력에 호소함 없이 평화적 협  
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획득  
은 용납될 수 없다.
3.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포함한 합법적 제반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4.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만이 팔레스타인 인민  
을 유일하게 대표한다.
5.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전쟁당시에 점령한 예  
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아랍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한  
다.

1973년 「성명」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  
은 인정되고 존중”된다고 하며 제한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  
했지만, 이 서한에서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  
지와 연대감”이라는 높은 수위의 지지를 표명했다. 점령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은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  
에 전달되었다. 1964년 한국 정부를 설득해 서울에 주한  
대사관을 설치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1973년 「성명」을  
접하고 유감과 실망의 뜻을 대사관 서기관을 통해 표명했  
지만 양국의 우호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sup>22</sup>  
1978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한국 대사관을 개설할 것

을 요청했다. 이때까지 아랍 측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이  
스라엘에 상주 공관 개설을 유보해 왔던 한국 정부는 다시  
그것을 거부했다.<sup>23</sup> 당시 이스라엘 외상이었던 모세 다안  
Moshe Dayan은 이 사건에 분노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한국이 UN에 가입한 1991년 무렵까지 이러한 한국의  
친-아랍, 친-팔레스타인 외교는 기본적으로 유지됐다. 이  
스라엘 대사관은 1992년 11월 서울에 재설치되었다.

## 4.2 UN에서 행사한 표결 내용

한국은 1991년 9월 UN에 가입한 후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적은 없다. 다만 많은 중요  
한 사안에 기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이 UN에서 결의안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여  
할 수 있었던 주요 멤버십으로 다음이 있다.

- 56회차 UN 총회 의장국 (의장 한승수) :  
2001~2002
-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 1996~1997
- 경제사회이사회 : 1993~1995, 1997~1999,  
2003~2006, 2008~2010
- 인권이사회 : 2006~2011
-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전신) : 1993~2004

한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에  
일관되게 찬성해왔지만 점령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서는 일관되게 기권해왔다. 한편 정착촌 건설 문제에 대해  
서는 일관되게 규탄 결의안에 찬성해왔는데 이것은 석유  
파동 이후 한국의 초기 외교 정책과 궤를 같이할 뿐 특별  
히 내용상의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 4.2.1 UN 총회 결의안

21 동아일보 (1981/12/02) “팔 자결권 존중돼야 노외무 UN에 서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81120200209202017&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81-12-02&officeId=00020&pageNo=2&printNo=18512&publishType=000  
20&doNotReadAnyMore=notClose](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1120200209202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1-12-02&officeId=00020&pageNo=2&printNo=18512&publishType=00020&doNotReadAnyMore=notClose) (방문일: 2011/11/30)

22 경향신문 (1973/12/17) “양국우호는 불변' 이스라엘 대사관, 견감  
표명”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7312170032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73-12-](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12170032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12-) (방문일: 2011/11/30)

23 동아일보 (1978/02/18) “이 외무성 발표 상주공관 개설 한국측서  
거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  
articleId=1978021800209201017&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1978-02-](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21800209201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2-) (방문일: 2011/11/30)



[이미지1] 2009 가자 침공 당시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민간인에게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가자에 퍼붓고 있다

2001~02년에 한국은 56회 UN 총회 의장국이었다. 당시 의장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한승수로 그의 취임일에 9·11 사건이 발생하여 취임이 하루 미뤄졌다. 그는 다음날 취임과 함께 ‘테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이 총회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총회 활동은 많지 않았다. 한 가지 주요한 결의안으로 2002년의 제닌 Jenin과 다른 팔레스타인 도시에 관한 총회의 긴급 결의안이 있는데, 동 결의안 채택에도 한국은 역시 기권했다.<sup>24</sup>

동 결의안은 2002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닌 난민촌 공격에 대한 것이었다. 제닌 난민촌 공격에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7월 31일 UN 공식 진상 보고서는 제닌의 사망자 52명 중 절반이 민간인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이스라엘이 UN 진상 조사단을 거부한 것을 비난하기도 했다.

2009년에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채택된 결의안은 20건이었고, 2010년에는 19건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한국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번씩 기권했다. 한국이 기권한 결의안에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의 보고서, 소위 「골드스톤 보고서」 Goldstone Report에 대

24 UN 총회 (2002/05/0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0/10. Illegal Israeli actions in Occupied Eas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ttp://unispal.un.org/UNISPAL.NSF/0/72DA83FF10657C9985256BC2005B8D23> (2011/9/16)

한 후속 조치 2건이 포함되어 있었다.<sup>25 26</sup> 물론 한국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 최초의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 4.2.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었던 1996~1997년에 팔레스타인과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총 10건이다. 이중 한국이 기권한 적은 없으며, 1개의 결의안<sup>27</sup>을 제외한 모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4.2.3 UN 인권이사회

2006년 UN 인권이사회가 출범했을 때 아시아에서는 13개국이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도 2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년 임기로 재선에 성공했다.

인권이사회는 UN 총회의 보조 기관으로서,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 하나였던 인권위원회를 개편하고 그 위상을 높인 것이다. 2006년 설립 시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4개국의 반대와 3개국의 기권이 있었으나 17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설립되었다. 이스라엘은 인권이사회 활동에서 가장 많이 규탄받은 나라다.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다른 UN 기관들의 표결에서도 자주 기권해왔지만, 이는 인권이사회 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안을 제외하면, 한국은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 이스라엘 정착촌 철수에 관한 결의안 외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 기권했다. 기권한 사안 중에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25 UN 총회 (2009/12/01) “Resolution 64/10.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 on the Gaza Conflict” <http://domino.un.org/unispal.nsf/0/9cc062414581d038852576c10055b066> (방문일: 2011/9/16)

26 UN 총회 (2010/03/25) “Resolution 64/254. Second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 on the Gaza Conflict” <http://unispal.un.org/UNISPAL.NSF/0/763D289FB7F2019B852576F20050496B> (방문일: 2011/9/16)

27 UN 안전보장이사회 (1996/09/28) “Situation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http://www.worldlii.org/int/other/UNSCRsn/recent.html> (방문일: 2011/09/19)



[이미지2] 2009년 가자 공격 당시 부서진 보육원과 사원의 잔해

가자 침공을 규탄하고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 결의안<sup>28</sup>과 이스라엘이 봉쇄된 가자로 향하는 인도주의적 구호선단을 공격해 평화활동가 9명을 살해한 사건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의안<sup>29</sup>도 있었다. 특히 가자 구호선단 공격 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 6월 1일 “금번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으면서도 인권이사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28 UN 총회 (2009/01/12) “Resolution A/HRC/S-9/L.1/Rev.2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OPT, Israeli military attack on Gaza, Fact-finding mission”  
<http://unispal.un.org/UNISPAL.NSF/0/A8A783ACB5D0C6B88525753C0071F427> (방문일: 2011/09/19)

29 UN 총회 (2010/06/02) “Resolution A/HRC/RES/14/1 The Grave Attacks by Israeli Forces Against the Humanitarian Boat Convey”  
<http://domino.un.org/unispal.nsf/0/4d2f5b28bb470a8e8525773d0051f543> (방문일: 2011/09/19)

### 4.3 분리장벽 · 정착촌 · 가자Gaza에 대한 입장

상술한 UN에서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시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주로 기권함으로써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 입장은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유지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7건의 성명과 1건의 논평을 냈다. 이중 6건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한 것이었고, 1건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폭탄테러에 관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1건은 이스라엘이 가자로 향하는 평화 활동가들의 구호선단을 공격한 데 관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태’나 ‘분쟁’이라 부를 뿐 ‘점령’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UN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침공’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측에 ‘교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에 살해되는 민간인에게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할 뿐 이스라엘을 규탄하지는 않는다.

양측 모두에게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을 촉구하고 ‘여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말 「가자지구 사태 악화에 대한 대변인 성명」<sup>30</sup>에서는, 이스라엘이 1,400여 명의 가자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두고 “최근 하마스의 공격과 곧 이은 이스라엘의 공습”이라고 말하면서 하마스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서슴없이 풍겼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자 「가자사태 관련 교전 중단에 대한 대변인 성명」<sup>31</sup>을 내고 “교전 중단을 환영”했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악화된 가자 지구의 보건 상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결의안에 찬성하고<sup>32</sup> 가자 재건 사업을 원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이 침공이 ‘교전’이었다면 왜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적으로 팔레스타인인지와 같은 문제는 전혀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UN에서의 활동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가자 침공과 구호선단 공격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과 관련된 모든 결의안에 기권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6월 1일에

「가자 구호선단 무력 저지에 대한 대변인 성명」<sup>33</sup>을 내서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태도이다.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선단을 공격하자 국제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베트남은 당시의 반 이스라엘 정서에 입각해 시몬 페레스 Shimon Peres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sup>34</sup> 시몬 페레스의 방문을 ‘공식 방한’에서 ‘실무 방한’으로 격하시켰을 뿐이었다.<sup>35</sup>

분리장벽과 정착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언가 언급한 적은 거의 없으며, 정착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착촌 철수를 요구하는 UN 결의안에 일관되게 찬성한 것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30 외교통상부 (2008/12/29)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19625&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19625&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09/19)

31 외교통상부 (2009/01/19)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0030&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0030&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09/19)

32 외교통상부 (2009/01/22) “세계보건기구(WHO), 가자지구 보건 상황 결의 채택”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0116&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0116&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12/02)

33 외교통상부 (2010/06/01)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8210&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8210&c=TITLE&t=%EAB0%80%EC%9E%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12/02)

34 Haaretz (2010/06/10) “South Korean protestors greet Perez with cries of ‘killer’” <http://www.haaretz.com/news/diplomacy-defense/south-korea-protesters-greet-peres-with-cries-of-killer-1.295316> (방문일: 2011/09/19)

35 Ravid, B (2010/06/06) “South Korea lowers status of Peres visit in wake of Gaza flotilla raid” <http://www.haaretz.com/news/diplomacy-defense/south-korea-lowers-status-of-peres-visit-in-wake-of-gaza-flotilla-raid-1.294523> (방문일: 2011/09/19)

# 5장 점령·식민화·인종차별 지원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식민화, 인종차별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목격된다.

1.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과 협조하면서 사업을 전개하며 이스라엘의 인프라 구축을 돕고 있다.
2.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의 국방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
3. 한국 기업, 혹은 그 지주회사, 제휴 회사는 점령에 연루되어 있다.
4. 한국의 학술 단체는 점령에 연루된 이스라엘의 학술 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 5.1 BDS 캠페인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단체 연합체인 BDS 민족 위원회(BDS National Committee, 이하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Boycott, 투자 철수Divestment, 경제 제재 Sanctions를 취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했다. 이 캠페인은 인종차별에 맞선 남아프리카인들의 투쟁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보장 혹은 강제하는 데 실패한 것의 대안으로 고안되었다.<sup>36</sup>

BDS 캠페인은 이스라엘이 다음 세 가지 요구에 응하거나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완전히 끝내고 분리

장벽을 해체할 것.

2.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 권리를 승인할 것.
3. UN 결의안 194<sup>37</sup>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할 것.

BDS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년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 국가연금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이스라엘 무기 제조 업체인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를 제외했다.<sup>38</sup>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대학교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교와 단교하였으며,<sup>39</sup> 로저 워터스Roger Waters<sup>40</sup>나 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lo<sup>41</sup>, 픽시스Pixies<sup>42</sup> 등의 뮤지션들이 이스라엘에서 공연하는 것을 거부했다.

『예루살렘 포스트』 지는 한국이 보이콧 운동에 맞서

36 BNC “Palestinian Civil Society Call for BDS” <http://www.bdsmovement.net/call> (방문일: 2011/09/06)

37 U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4” <http://unispal.un.org/UNISPAL.NSF/0/C758572B78D1CD0085256B CF0077E51A> (방문일: 2011/09/06)

38 Adams, E “Norway’s Pension Fund drops Israel’s Elbit” <http://online.wsj.com/article/SB125197496278482849.html> (방문일: 2011/09/06)

39 Laing, A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ean/southafrica/8404451/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06)

40 Haaretz Service “Roger Waters Voices Support for Israel Boycott” <http://www.haaretz.com/culture/roger-waters-voices-support-for-israel-boycott-1.347411> (방문일: 2011/09/06)

41 Dodd, V & McCarthy, R “Elvis Costello Cancels Concerts in Israel as Protest at Treatment of Palestinians” <http://www.guardian.co.uk/music/2010/may/18/elvis-costello-cancels-israel-concerts> (방문일: 2011/09/06)

42 Michaels, S “Pixies Cancel Gig Following Gaza Raid” <http://www.guardian.co.uk/music/2010/jun/07/pixies-cancel-israel-gig> (방문일: 2011/09/06)

이스라엘과 150억 달러어치의 합작 투자기금을 조성한다며, “이스라엘 보이콧, 투자 철수,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으며, 한국도 그중 하나”라고 한국을 찬양한 바 있다.<sup>43</sup>

한국의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팔레스타인의 BDS 요청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 기업, 기관, 소비자들이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해지는 불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평등에 기여하는 선택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5.2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많은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6장, 8장 참조).

중요한 것은 정착촌 건설에 연루된 기업과 명시적으로 계약을 맺는 등 점령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경제에 투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점령이 이스라엘 경제에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점령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수많은 국제법 위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BDS 캠페인은 점령의 종식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선주민인 팔레스타인인에게 다른 이스라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보장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목표들은 점령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달성될 수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학술적·문화적 보이콧 캠페인’ 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오마르 바르구티 Omar Barghout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3 Jerusalem Post (2010/11/22) “Israel, South Korea sign MOU to assist companies” <http://www.jpost.com/DiplomacyAndPolitics/Article.aspx?id=196266> (방문일: 2012/04/16)

X국이 Y국을 점령하고 점령의 종식을 요구하는 UN 결의안을 끊임없이 위반할 경우, 국제 사회는 X국의 점령에 따른 일부 문제들이 아니라 X국 자체를 징벌한다. [각 나라의]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장기적이고 호전적인 점령과 인종차별, 혹은 기타 심각한 인권 위반을 자행하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계속해서 보이콧해오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반투스탄 Bantustans만을 떼어 보이콧한 운동이 있었는가? 수단 다르푸르 Darfur 학살에 대해 수단 군대나 정부 고관만을 상대로 한 보이콧 운동이 있는가? 티벳에 연대하는 활동가들이 티벳에서 생산되는 중국 제품만을 보이콧한 사례가 있는가?<sup>44</sup>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운동이 점령 및 관련 산업만을 보이콧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랍계 소수 민족’ 혹은 팔레스타인계 시민은 120만 명에 달하며,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2010년에 발표된 ‘이스라엘 내 아랍인의 권리를 위한 아달라 Adalah 법률 센터’의 「불평등 보고서」<sup>45</sup>에 따르면, 국제 인권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계 시민이 인종적·언어적·민족적·종교적 소수임을 기본법을 통해 선언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차별 정책 탓에 국제법적 보호를 부정당한 팔레스타인계 시민은 시민권, 정치 참여, 건강, 교육, 복지 혜택 등의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다.<sup>46</sup>

BDS 캠페인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인데, 이들은 1948년과 1967년에 집과 고향을 떠나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 국가의 난민촌 등에 살게 된 난민은 140만 명에 이르

44 Barghouti, O “Boycotting Israeli settlement products: tactic vs. strategy” <http://www.palestina-komitee.nl/dossiers/9/66> (방문일: 2011/09/06)

45 Adalah: The Legal Centre for the Arab Minority in Israel “Inequality Report: The Palestinian Arab Minority in Israel (February 2011)” <http://www.adalah.org/upfiles/Christian%20Aid%20Report%20December%202010%20FINAL%281%29.pdf> (방문일: 2011/09/06)

46 Ibid p. 2(방문일: 2011/09/06)

며,<sup>47</sup> 이는 전 세계 난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UN 결의안 194의 11조에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난민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sup>48</sup> 이스라엘은 난민의 귀환권을 부정하고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1950년 귀환법을 제정해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선조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환법은 그 자체만을 따져봐도 특정 인종·종교 집단에만 이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라는 쟁점은 점령과 동시에 생각되어야 한다. BDS 캠페인과 그 세 가지 목표를 지지하는 우리는 한국의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에 반대한다.

### 5.3 이스라엘 군수 산업과의 협력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 협력 관계는 주로 한국의 이스라엘 군수품 수입에서 드러나며, 이는 점점 늘고 있다.

1992년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설치된 이후 양국의 정재계가 원했던 것은, 양국이 전시체제 아래에 있음을 근거로 육성해온 서로의 군사기술을 교류하는 것이었다. 서로 협조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시장으로 삼음으로써 군수품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 양국의 바람은 1995년 8월 27일에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맺음으로써 실현되었다.

2009~2010년에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40억 달러어치의 군수품을 매입했다.<sup>49</sup> 그 밖에도 양국이 승인한 거래가 많이 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주된 무기 공급처가 될 것

이라 예상하는 논평자들도 있다.<sup>50</sup>

2011년 7월 9일,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를 요청했다.<sup>51</sup> BNC가 각국 정부, 기업, UN, 다국적 단위들에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관련 물자 공급을 일체 중단할 것. 이 공급에는 무기와 탄약, 군용 차량 및 장비, 군대에 준하는 경찰용 장비의 판매·전송이 포함되며, 또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장비, 전술한 것들을 위한 예비품들도 포함된다. 그 외 일체의 장비 공급과 전술한 것들을 제조·유지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발급도 중단할 것.
2. 이스라엘로부터 군용·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장비, 보조 물자, 군수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
3. 육해공 통틀어 이스라엘과의 여하한 군수품 전송·수송을 중단할 것.
4. 이스라엘 군대 및 군수 기업과 협력 관계를 끊고,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합작 투자를 포함한 군사 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
5. 이스라엘 군대와 군수 기업, 학술조사기관과의 군사 관련 훈련과 자문을 중단할 것.
6. 이스라엘에 대한 여하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
7. 이스라엘과 핵 무기 제조 및 개발 관련 협력을 끊고 핵무기 없는 중동을 만드는 데 협조할 것.

T-50 검독수리를 제외하면(6장 2절 참조)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량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무기와 군사 기술의 큰 고객이다. 한국이 거래하는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스와 이스라엘 국영기업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이하 IAI)과 같은 회사는 점령의 일부이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에 연루되어 왔다.

47 UNRWA “Palestinian Refugees”

<http://www.unrwa.org/etemplate.php?id=86> (방문일: 2011/09/06)

48 U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4”

<http://unispal.un.org/UNISPAL.NSF/0/C758572B78D1CD0085256B CF0077E51A> (방문일: 2011/09/06)

49 Weekly blitz News Desk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for South Korea” <http://www.weeklyblitz.net/1677/israel-turning-into-main-arms-supplier-to-south> (방문일: 2011/09/06)

50 Ibid (방문일: 2011/09/06)

51 BDS National Committee “Impose an Immediate, Comprehensive Military Embargo on Israel”

<http://www.bdsmovement.net/2011/military-embargo-call-7497> (방문일: 2011/09/06)

## ▶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IAI는 무인정찰기, 전투기, 미사일 등을 제조한다. IAI의 무기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22일간 자행된 가자 침공, 혹은 ‘캐스트 리드 작전’ Cast Lead Operation에서 사용되었다. 가자 침공으로 어린이 344명과 여성 110명을 포함한 1,3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다.<sup>52</sup> 국제 기구인 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가자 침공 동안 민간인 29명이 무인정찰기에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sup>53</sup>

IAI는 분리장벽에 설치되는 감시 장비도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 측이 “보안 장벽”이라 부르는 분리장벽은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불법으로 선언되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장벽을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sup>54</sup>

## ▶ 엘빗 시스템스 Elbit Systems

엘빗 시스템스도 IAI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해에 쓰이는 무인정찰기를 제조한다.

엘빗 시스템스는 분리장벽에 설치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제조한다.<sup>55</sup> 이 회사는 아리엘 Ariel 정착촌에 감시 장비도 제공한다.<sup>56</sup> 정착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4차 제네바협약 49조 6항은 점령국의 시민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sup>57</sup>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한국 방위 예산은 300억 달러이고, 군 예산은 100억 달러로 상황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그린 파인 레이더 Green Pine radar와 하피 Harpy 무인정찰기를 구입했다.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원이 되었다.<sup>58</sup>

## 5.4 점령에의 연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 기업이 이에 조력함으로써 점령에 관여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은 서안 지구에 건설되는 불법 정착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천연 자원을 수탈해 생산되는 상품들이 판매되도록 돕는다.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뿐 아니라 불법 정착촌 건설의 끊임없는 증가라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의 자유는 분리장벽과 검문소, 유대인 전용 도로의 조합에 의해 심각하게 감시되고 제한된다.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 세 가지 장애물 중 최소한 하나 이상에 갇혀 있다(이하에서는 이 시스템을 ‘검문소 시스템’이라 부른다).

장벽 외에도 서안 지구 전역에는 505개의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다. 이중 군인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 검문소는 25개, 군인이 상주하는 검문소는 64개다. 통행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로는 바리케이드, 참호, 토제(화약류를 보관하는 공실) 등이 있다.<sup>59</sup> 장애물과 검문소는 장벽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 서안 지구를 게토ghetto로 산산조각 낸다. 검문소의 상당수가 이동식 검문소다. 이동식 검문소는 비정기적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나타난다. 언제 어디서 검문을

52 벳셀렘 “Fatalities During Operation Cast Lead” [http://old.btselem.org/statistics/english/casualties.asp?sD=27&sM=12&sY=2008&eD=18&eM=01&eY=2009&filterby=event&oferet\\_stat=during](http://old.btselem.org/statistics/english/casualties.asp?sD=27&sM=12&sY=2008&eD=18&eM=01&eY=2009&filterby=event&oferet_stat=during) (방문일: 2011/09/06)

53 Human Rights Watch “Precisely Wrong: Gaza Civilians Killed by Israeli Drone-Launched Missiles”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iopt0609webwcover\\_0.pdf](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iopt0609webwcover_0.pdf) (방문일: 2011/09/06)

54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2004”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1/1677.pdf> (방문일: 2011/09/06)

55 Stop the Wall “Companies Building the Apartheid Wall” <http://www.stopthewall.org/downloads/pdf/companiesbuildingwall.pdf> (방문일: 2011/09/06)

56 Who Profits “Elbit Systems” <http://whoprofits.org/Company%20Info.php?id=554> (방문일: 2011/09/06)

57 UN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방문일: 2011/09/13)

58 Weekly blitz News Desk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for South Korea” <http://www.weeklyblitz.net/1677/israel-turning-into-main-arms-supplier-to-south> (방문일: 2011/09/06)

59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est Bank Movement and Access Update” <http://domino.un.org/unispal.nsf/0/4b8b74b1450a13c48525790300498980?OpenDocument> (방문일: 2011/09/13)

당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검문소 시스템은 아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sup>60</sup> 이는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NGO 벡셀렘B'Tselem에 따르면 2000년 9월 29일에서 2011년 2월 28일 사이 약 4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검문소에서 병원으로의 이동 허가를 기다리다 사망했다.<sup>61</sup> 2차 인티파다가 발발한 2000년 9월부터 2006년 사이에는 이동 허가를 받지 못한 69명의 산모가 검문소에서 출산해야만 했고, 이는 산모 5명과 신생아 35명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낳았다.<sup>62</sup>

또한 검문소 시스템은 서안 지구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주요 경각지 접근 제한이 경제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sup>63</sup>

그 외에 검문소에서 서안 지구 주민이 당하는 폭력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기록되고 있다. 베이트 아르Beit 'Amra 출신 무함메드 이디스Muhammed Id'is(27세)는 아-투와니a-Tuwani 마을과 샨니Shani 검문소와 가까운 이동식 검문소에서 군인들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했다. 그는 내장 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sup>64</sup> 점령지 인권에 관한 UN 특별조사관은 “이스라엘이 검문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검문소가 기본적으로 팔레스

타인인에게 모욕감과 불쾌함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sup>65</sup>

국제 사회는 이미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점에 거의 완전히 합의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sup>66</sup>와 국제사법재판소<sup>67</sup>는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라 결정했다. 4차 제네바협약 49조는 점령국 시민들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UN은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왔으며 이스라엘에 자국민을 점령지인 팔레스타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해왔다. 분리장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UN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정착촌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그 어떤 종류의 평화도 지속되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애물인 정착촌 탓에 팔레스타인인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일례로 정착민 전용 도로는 팔레스타인 마을을 계도화하고 있다. 이 도로는 검문소와 분리장벽을 따라 팔레스타인 마을을 포위하거나 마을들을 단절시키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이웃 마을, 학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하고 있다.

정착촌의 증가는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증가시킨다.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는 것이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벡셀렘은 2001년 9월부터 2011년까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사는 50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8</sup> 물론 죽음에 이르지 않은 심각한 상해를 입힌 공격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

60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est Bank Movement and Access Update” <http://domino.un.org/unispal.nsf/0/4b8b74b1450a13c48525790300498980?OpenDocument> (방문일: 2011/09/13)

61 벡셀렘 “Palestinians who died following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medical treatment in the West Bank, 29.9.2000 - 31.8.2011” [http://old.btselem.org/statistics/english/Casualties\\_data.asp?Category=21&region=WB](http://old.btselem.org/statistics/english/Casualties_data.asp?Category=21&region=WB) (방문일: 2011/09/13)

62 Palestine Monitor “Palestine Monitor Factsheet: Checkpoints” <http://www.palestinemonitor.org/?p=206> (방문일: 2012/05/26)

63 세계은행 “The Economic Effects of Restricted Access to Land in the West Bank”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WESTBANKGAZA/Resources/EconomicEffectsofRestrictedAccessToLandintheWestBankOct.21.08.pdf> (방문일: 2011/09/13)

64 벡셀렘 “Testimony: Soldiers Brutally Beat Muhammed Id'is near A-Tuwani Villagae and Shani Checkpoint, September 2009” [http://www.btselem.org/testimonies/20090906\\_soldiers\\_assault\\_muhammed\\_ides\\_in\\_a-tuwani](http://www.btselem.org/testimonies/20090906_soldiers_assault_muhammed_ides_in_a-tuwani) (방문일: 2011/09/13)

65 Drugard, J “Human Rights in Palestine”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335&LangID=E> (방문일: 2011/09/13)

66 UN 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46” <http://www.cfr.org/israel/un-security-council-resolution-446-israel/p11195> (방문일: 2011/09/13)

67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2004” <http://www.icj-cij.org/docket/files/131/1677.pdf> (방문일: 2011/09/06)

68 벡셀렘 “Violence by Settlers: Background of Violence by Settlers” [http://www.btselem.org/settler\\_violence](http://www.btselem.org/settler_violence) (방문일: 2011/09/13)

타인에 적용하기 위해 2개의 법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시민이라는 사실 덕분에 이스라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피점령자인 탓에 군법에 의해 군사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비판자들은 2개의 법체계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도 높은 인종차별 정책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sup>69</sup>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전 세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착촌에서는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 상품들을 한국을 포함해 정착촌의 확대를 비난하는 바로 그 나라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의 상당수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의 천연 자원을 수탈해 생산된 것이다.

## 5.5 점령과 관련된 학술 기관과의 교류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술 기관 간의 교류는 일견 점령과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대학은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고 점령을 강화하는 무기와 감시 기술을 활발히 개발해왔다(9장 참조).<sup>70</sup>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학술 기관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기관들과 협력·발전시키는 미래 기술의 차후의 사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학술 기관와의 교류는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으로 비춰지며 이스라엘의 점령과 식민화, 인종차별을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BNC의 구성원이기도 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학술적·문화적 보이콧 캠페인 PACBI 측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철수할 것과 분리장벽의 해체, 아랍계 이스

라엘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승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권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PACBI가 학술계와 국제 사회에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의 어떠한 학술, 문화적 교류, 협력,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
2. 국내외 차원에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는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학술 기관 보이콧을 옹호할 것.
3. 국제 학술 기관의 이스라엘 투자 철수, 방지에 노력할 것.
4. 학술 기관들과 교수, 문화적 협의체나 기관들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의 정책을 규탄하는 데 일조할 것.
5. 팔레스타인 학술, 문화 기관을 직접 지원하되 그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써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이스라엘의 기관과 파트너가 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sup>71</sup>

이러한 요청에 몇 개 대학이 응하였다. 최근의 사례로는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대학이 팔레스타인에서의 군사 행동과 인권 침해 행위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학문 사회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과 교류를 끊었다.<sup>72</sup>

69 Falk, 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http://www.middleeastmonitor.org.uk/downloads/other\\_reports/report-of-the-special-rapporteur-on-the-situation-of-human-rights-in-the-palestinian-territories-occupied-since-1967.pdf](http://www.middleeastmonitor.org.uk/downloads/other_reports/report-of-the-special-rapporteur-on-the-situation-of-human-rights-in-the-palestinian-territories-occupied-since-1967.pdf) p.4 (방문일: 2011/09/13)

70 Keller, U “The Economy of the Occupation: Academic Boycott of Israel” <http://www.alternativenews.org/english/index.php/topics/economy-of-the-occupation/2223-the-economy-of-the-occupation-23-24-academic-boycott-of-israel> (방문일: 2011/09/13)

71 PACBI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Academic Boycott of Israel” <http://www.pacbi.org/etemplate.php?id=1108> (방문일: 2011/09/13)

72 The Telegraph. Laing, A (2011/3/24)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an/southafrica/8404451/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13)

# 6장 한국 기업들

## 6.1 이스라엘 인프라 구축 개발에 협력 · 공헌하는 기업들

### 현대종합상사(주) Hyundai Corporation

- <http://www.hyundaicorp.com/>
- 업종: 상품 종합 도매업
- 매출액: 5,030,784,326,000원<sup>73</sup>

현대종합상사는 선박 · 플랜트 · 철강 · 자동차와 기타 일반 상품의 무역 및 유통 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기업이다.

1996년에 현대종합상사는 이스라엘 정보 통신 공사 베제크Bezeq와 1,270만 달러 상당의 광케이블 3만 킬로미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sup>74</sup> 베제크는 이스라엘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스라엘 군대와 불법 정착민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이스라엘의 점령과 식민화, 인종 차별에 공모해온 것으로 비난받아왔다.<sup>75</sup> 현재 현대종합상사는 케이블 관련 사업을 종료했다.

현대종합상사는 1994년 초에 텔아비브에 지사를 설치

하여<sup>76</sup> 2009년 말까지 운영했다.<sup>77</sup>

### (주)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 <http://www.daewoo.com/index.jsp>
- 업종: 상품 중개업
- 매출액: 18,758,511,490,000원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제 무역 · 해외 투자 · 에너지 자원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999년 텔아비브에 지사를 설립했고, 2011년 말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sup>78</sup>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6월에 이스라엘 기업 OPC Rotem Ltd.와 네게브 사막에 44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sup>79</sup> OPC Rotem Ltd.는 이스라엘 그룹 Israel Corp.의 자회사이며, 이스라엘 그룹은 정유공장 · 화학공장 · 광물자원공장 · 비료공장 · 반도체 공장 등을 가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프라 기업이다.<sup>80</sup>

73 상장공시시스템 <http://kind.krx.co.kr> 이하 매출액의 출처는 모두 같다.

74 연합뉴스 (1996/11/01) “현대상사, 광케이블 이스라엘 공급에 현 지업체 트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120462> (방문일: 2011/09/19)

75 Who Profits “Bezeq: The Israeli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http://www.whoprofits.org/company/bezeq-israeli-telecommunication-corporation> (방문일: 2012/07/17)

76 경향신문 (1995/07/29) “이스라엘을 공략하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72900329109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5-07-%2029&officeId=00032&pageNo=9&printNo=15495&publishType=00010&doNotReadAnyMore=notClose> (방문일: 2011/11/29)

77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현대종합상사 2010. 3. 30 사업 보고서

78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대우인터내셔널 2012. 3. 30 사업 보고서

79 GLOBES (2010/06/28) “Daewoo to build Israel Corp’s Rotem Power Plant” <http://www.globes.co.il/serveen/globes/docview.asp?did=1000569996&fid=1725> (방문일: 2011/09/19)

80 KOTRA “가자공격, 이스라엘 바이어들 “조심스런 낙관”” (2008/12/30)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l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w1?](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l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w1?)

## 두산중공업(주)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 <http://www.doosanheavy.com/>
- 업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매출액: 6,669,496,851,000원

두산중공업은 원자력·화력 등의 발전 설비와 해수 담수화 플랜트, 환경설비, 운반설비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9월 이스라엘전력공사Israel Electric Corporation, IEC와 2,000억 원 규모의 총 4기의 화력발전소에 탈황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sup>81</sup> 탈황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2011년 3월에는 다시 이스라엘전력공사와 3,428억 363만 원 규모의 이스라엘 IEC Add on 복합화력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매출액의 5.46%에 해당한다.<sup>82</sup>

2012년 2월 두산중공업은 삼양엔텍과 51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발전소 폐수처리 설비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다.<sup>83</sup> 두산중공업이 이스라엘 측과 계약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대한항공 Korean Air Lines Co.,LTD

- <http://kr.koreanair.com/>
- 업종: 정기 항공 운송업
- 매출액: 11,805,281,564,000원

대한항공은 국제화물수송 분야 세계 1위, 국제여객수송 분야 세계 17위 등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다.

대한항공은 1994년에 체결된 한국-이스라엘 항공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서울-텔아비브 직항편의 취항을 시작

했다. 1998년에는 한국 경제 위기를 이유로 취항을 중단했지만 2008년 취항을 재개해 2012년 현재 주 3회 취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화물과 여객 수송을 위해 텔아비브에 지점을 열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이른바 ‘성지 순례’(10장 참조)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인원을 연간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sup>84</sup> 대한항공은 한국의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직항편을 취항하고 있다.

## 6.2 이스라엘의 군수산업과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

1992년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설치된 이후 양국 정재계가 원했던 것은 양국이 전시체제 아래에 있음을 근거로 육성해온 군사 기술을 교류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했고, 또한 서로의 시장이 넓으므로 군수품의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이런 양국의 바람은 1995년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아래서 살펴볼 한국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 각서 체결 이후 시작된 것이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 <http://www.koreaero.com/>
- 업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매출액: 1,266,710,956,000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은 1999년에 당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창립된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 최대기업이다.

KAI는 2003년 이스라엘 최대의 방산 업체인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와 F-5 개조 수출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sup>85</sup> 2009년에는 엘빗 시스템스에서 70%를 출자한

1=1&workdist=read&id=2055390 (방문일: 2012/05/01)

81 오마이뉴스 “두산중공업, 이스라엘에서 2000억원 탈황설비 수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539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5398) (방문일: 2012/05/01)

82 이투데이 “[공시]두산중공업, 3428억 규모 공급 계약” (2011/03/2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199&idxno=421541> (방문일: 2012/05/01)

83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삼양엔텍 2012. 2. 22 공시 자료

84 세계일보 (2010/11/23) “[세계의 성지] @개신교 ‘예루살렘’”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01123003979&subctg1> (방문일: 2011/09/21)

85 EBN Steel News (2003/11/05)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스라엘 항공



[이미지3] T-50 검독수리

엘이스라Elisra와 700만 달러 상당의 전자전Electronic warfare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sup>86</sup>

KAI는 2002년 T-50의 공동개발주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Corp. 및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생산업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기 교체기종 선정 시 T-50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sup>87</sup> T-50은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제작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서 한국의 정재계는 전력을 기울여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추진했다.

2011년 10월 초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공군이 T-50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수 거래를 끊겠

다고 협박한 것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나,<sup>88</sup> 결국 2012년 2월 이스라엘 공군은 최종적으로 이탈리아의 M-346을 선택했다.

KAI가 개발한 T-50은 이스라엘 공군에 수출하는 데에 실패했지만 T-50의 전자장비는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스에서 수입한 것이다. 엘빗 시스템스는 무인항공기 제조와 팔레스타인 점령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를 이유로 2010년 노르웨이 연금기금과 덴마크 제1은행은 엘빗 시스템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sup>89</sup>

###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Huneed Technologies

- <http://www.huneed.com>

기 수출 추진” [http://steel.ebn.co.kr/news/n\\_view.html?id=17770](http://steel.ebn.co.kr/news/n_view.html?id=17770) (방문일: 2011/11/21)

86 GLOBES (2009/02/08) “Elbit unit Elisra wins South Korean contract” <http://www.globes.co.il/serveen/globes/docview.asp?did=1000423660> (방문일: 2012/05/01)

87 한경닷컴 (2002/3/3) “이스라엘에 훈련기 공급.. 항공우주산업, MOU 체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2030324011> (방문일: 2011/11/21)

88 Haaretz (2011/10/06) “South Korea threatens to cancel all defence deals with Israel”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news/south-korea-threatens-to-cancel-all-defense-deals-with-israel-1.388404> (방문일: 2011/11/21)

89 Electronic Intifada (2010/02/19) “Scandinavian Financial Institutions drop Elbit due to BDS Pressure” <http://electronicintifada.net/content/scandinavian-financial-institutions-drop-elbit-due-bds-pressure/8685#.TsuRVZAnt8> (방문일: 2011/11/21)

- 업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매출액: 47,340,198,000원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1968년 창립된 무선통신 개발·생산 업체이다. 군사 부문에서는 군 전술 통신망, 데이터 링크, C3N, 전투 체계 등에 관여하고 있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2010년 5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방산 업체인 엘타 시스템스Elta Systems Ltd.와 탄도 유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 TRUTransmit Receive Unit에 관한 계약을 73억 9천만 원에 체결했다.<sup>90</sup>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2012년 2월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생산 업체 IAI와 총 121만 달러 규모의 해외수출용 전자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2월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이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2010년 매출액 527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sup>91</sup>

#### 퍼스텍(주) Firstec Co., Ltd.

- <http://www.firstec.com.co.kr/>
- 업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매출액: 81,844,543,000원

퍼스텍은 화포·기동·유도무기·항공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이다.

퍼스텍은 2007년 10월 IAI와 무인항공기의 한국 국내 생산과 마케팅 관련 공동 협력을 위한 독점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sup>92</sup> 이 양해각서에는 미니급 무인항공기 Bird Eye family of UAV Systems 및 근접전술 무인항공기 I-View UAV System의 마케팅 및 조립생산이 포함되어 있다.<sup>93</sup>

IAI는 이스라엘 공군의 무인항공 시스템을 30년 넘게 이끌어왔으며,<sup>94</sup> Bird Eye 시리즈 중 첫 모델인 Bird Eye 100은 이스라엘방위군(IDF)과의 기초 연구 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sup>95</sup>

#### LIG넥스원 LIG Nex1

- <http://www.lignex1.com/>
- 업종: 방산물자 개발·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 매출액: 알 수 없음

LIG넥스원은 무기·수중 무기·해군 전투 체계·레이더·전자광학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1999년 LG그룹에서 분리된 LG화재(현 LIG손해보험)가 설립한 LIG그룹 계열사 중 하나다.

2009년 9월 LIG넥스원은 이스라엘의 방산 업체인 엘타 시스템스Elta Systems Ltd.와 ELTA EL-2032 레이더를 도입하고 항공기용 레이더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sup>96</sup> 레이더는 전투 시 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공격기 임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장비로, 2011년 8월 T-50 체계종합팀 차재병 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ELTA EL-2032 레이더는 전투입문 항공기인 TA-50과 공격 전투능력을 구비한 항공기 FA-50에 장착되었다.<sup>97</sup>

#### 이오시스템 EO Systems

- <http://www.eosystem.com/>
- 업종: 방산물자 개발·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 매출액: 알 수 없음

이오시스템은 군용·민수용 전자광학제품을 개발·생

90 파이낸셜 뉴스 (2010/05/26) “휴니드, 이스라엘사와 73억 규모 공급계약”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100526134653&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26](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100526134653&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26) (방문일: 2011/11/30)

91 휴니드 웹사이트 (2012/01/27) “휴니드, 이스라엘 IAI사와 전자부품 공급 계약 체결” [http://www.hunee.com/kor/board/default05\\_view.asp?uid=232&page=1&key=&tb=5](http://www.hunee.com/kor/board/default05_view.asp?uid=232&page=1&key=&tb=5)

92 Newspim (2008/01/28) “퍼스텍, 세계적 방산업체 IAI사 소형무인항공기 사업자 방문”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080128000114> (방문일: 2011/11/21)

93 한국경제신문 (2007/10/16) “퍼스텍(주), IAI사와 소형 무인항공기 관련 MOU 체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01638607> (방문일: 2012/05/01)

94 IAI 웹사이트 (2011/10/03) “The Israel Air Force marks 40 years of UAV operational use” [http://www.iai.co.il/32981-43199-en/MediaRoom\\_News.aspx](http://www.iai.co.il/32981-43199-en/MediaRoom_News.aspx) (방문일: 2011/11/30)

95 Defense Update “BirdEye 100 Backpackable UAV” <http://defense-update.com/products/b/birdy.htm> (방문일: 2011/11/30)

96 국방일보 (2009/09/04) “LIG넥스원 항공기용 레이더 최초 국산화” <http://kookbang.dema.mil.kr/kdd/HearTypeView.jsp?writeDate=20090904&menuCd=3004&menuSeq=1&kindSeq=7&menuCnt=30911> (방문일: 2012/05/01)

97 저널오브 디시엔 (2011/08/26) “한국 최초 전투기 FA-50 취재현장” <http://dcn.or.kr/a2/104029> (방문일: 2012/05/01)



[이미지4] 현대 건설 중기가 동예루살렘 베이트 하니나 마을의 팔레스타인인의 집을 부수고 있다 (2011년 11월 24일)

산하는 업체로 군수 분야에서는 주·야간 관측 장비류, 조준경, 포경류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05년 10월 이오 시스템은 세계적인 전자광학장비 업체인 이스라엘의 엘롭Elobit Systems Electro-optics-Elop Ltd.과 제휴해\* 레이저, 열화상 장비, 전자광학 경보 시스템 등의 군용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 확인된 정보는 없다.

#### (주)도담시스템스 DoDAAM Systems Ltd.

- <http://www.dodaam.com/>
- 업종: 방산물자 개발·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 매출액: 알 수 없음

도담시스템스는 무기체계용 시뮬레이터, 지능형 로봇, 항공전자장비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다.

2001년 4월 도담시스템스는 엘빛과 포괄적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sup>99</sup>

98 ET News (2011/11/22) “이오시스템, 이스라엘 엘롭사와 제휴 체결” <http://www.etnews.com/200510200164> (방문일: 2011/11/21)

99 도담시스템스 웹사이트 주요연혁란

### 6.3 점령에 연루된 기업

#### 현대중공업(주)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 <http://www.hhi.co.kr/>
- 업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매출액: 25,019,604,058,000원

#### 가옥 파괴

현대중공업의 건설 중기는 팔레스타인의 가옥 파괴 현장에서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2010년11월10일-알 이사위야 Al-Issawiya 마을<sup>100</sup>, 2011년3월2일-와디 알그루스 Wadi al-Ghrous 마을<sup>101</sup> 등). 스탑더월 Stop The Walls은 비슷한 몇

[http://www.dodaam.com/sub\\_0105.php](http://www.dodaam.com/sub_0105.php) (방문일: 2012/05/01)  
100 FRS (2010/11/14) “East Jerusalem: Israeli occupation forces assault Al Issawiya, demolish housing”

<http://revolutionaryfrontlines.wordpress.com/2010/11/17/east-jerusalem-israeli-occupation-forces-assault-al-issawiya-demolish-housing/> (방문일: 2011/11/21)

101 Arabia MSN News (2011/03/02) “Israel destroys wells near Hebron: witnesses”  
<http://arabia.msn.com/news/middleeast/afp/2011/march/4100040.aspx?region=featured> (방문일: 2011/11/21)



[이미지5] 현대 건설 중기가 동예루살렘 앳튀르 마을 팔레스타인인들의 집 주변의 도로를 부수고 있다 (2012년 2월 2일)

개의 사례를 기록했다.

이런 차량들이 어떤 계약을 통해 현대에서 점령당국에 공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효한 한국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현대중공업 건설 장비 사업 본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동사는 이스라엘에서의 판매를 이스라엘 업체 Automotive Equipment and Vehicle, Ltd.에 위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일사와 현대의 지게차와 예비품의 수입과 마케팅”과 “현대중공업의 적재기, 굴삭기, 토사운반차량의 수입과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02</sup>

#### 사해 발전소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는 이스라엘 기업 Dead Sea Works Ltd.로부터 6천만 달러 상당의 디젤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 Dead Sea Works Ltd.는 서안 지구 북쪽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려 서안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을뿐더러,<sup>103</sup> 불법 정착촌의 바르칸Barkan 산업 지구에 위치한 기업 Krashin Shalev Metal Industries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sup>104</sup>

#### 두산인프라코어(주) Doosan Infracore Co., Ltd.

- <http://www.doosaninfracore.co.kr/>

<sup>102</sup> <http://www.aev.co.il/default.asp?catid=%7B739DDF56-B49A-455E-8714-BC67097306AC%7D> (방문일: 2011/11/30)

<sup>103</sup> Ynet News (2011/03/07) “Dead Sea faces shrinking, flooding” <http://www.ynetnews.com/articles/0,7340,L-4083265,00.html> (방문일: 2011/11/23)

<sup>104</sup> WhoProfits “Krashin Shalev Metal Industries” <http://www.whoprofits.org/company/krashin-shalev-metal-industries> (방문일: 2012/06/26)



[이미지6] 골란 고원의 카체린Katzerin 정착촌의 보브캣

- 업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매출액: 4,426,917,140,000원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 장비, 제조 장비, 산업 차량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은 보브캣Bobcat Company을 운영하고 있다. 보브캣은 서안 지구의 검문소·정착촌 건설 현장에 건설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sup>105</sup>

#### 기아자동차(주) Kia Motors Corporation

- <http://www.kia.co.kr/>
- 업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매출액: 27,742,277,000,000원

2011년, 기아는 이스라엘군에 Rio(프라이드) 모델을 대량 공급했다.<sup>106</sup>

## 6.4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한국 내 유통 상황

한국은 서구 제국과 달리 이스라엘과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위주의 점령지 상품의 유통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른바 인기 상품은 인터넷 혹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

<sup>105</sup> WhoProfits “Bobcat Company” <http://www.whoprofits.org/company/bobcat-company> (방문일: 2012/06/26)

<sup>106</sup> OIS “현대자동차, 이스라엘 자동차시장 판매량 1위 등극”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10411094740248916](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10411094740248916) (방문일: 2011/11/23)



[이미지]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천연자원을 수탈해 제품을 생산하는 아하바는 코드 핑크의 ‘강탈당한 아름다움’ 등 여러 반대 캠페인의 주요 타겟이다.

으며, 지명도도 낮지 않은 편이다.

### 아하바AHAVA 제품

미국 코드 핑크Code Pink의 ‘강탈당한 아름다움’Stolen Beauty 캠페인 등 많은 국제 캠페인을 통해 아하바가 사해의 천연 자원을 수탈해 정착촌에서 가공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sup>107</sup>

아하바는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다. 아하바의 제품은 G마켓,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2011년 8월에는 서울에 아하바 단독 오프라인 매장도 열렸다. 이는 한국에 최초로 열린 이스라엘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이기도 하다. 아하바의 국내 수입, 유통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대성산업이 담당한다. 아하바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대성산업은 자체 유통망을 통해 아하바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sup>108</sup>

### 스위티Sweetie

이스라엘 상품임이 명백한 과일 스위트의 유통도 아하바 제품과 비슷한 상황이다. 점령지에서 생산되고 이스라엘 기업이 판매하는 스위트 역시 한국의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sup>109</sup> 자파Jaffa 브랜드의 스위트는 Fruit Bank

107 Ibid “Ahava Dead Sea Laboratories”<http://www.whoprofits.org/company/ahava-dead-sea-laboratories> (방문일: 2012/07/17)

108 장업신문 (2011/08/06) “대성산업, 화장품시장 진출”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50> (방문일: 2012/08/04)

109 옥션 “스위티 자몽 8kg 22과내외”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48953904&fm3=V2> (방문일: 2011/11/23)

라는 한국 기업이 수입하고 있다.<sup>110</sup> 이 회사는 LS 그룹의 자회사 LS 네트워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sup>111</sup> LS 네트워크의 투자 관리 사업부가 관리한다.

### 소다스트림 SodaStream

소다스트림은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의 제조사이다. 소다스트림의 주요 생산 설비는 불법 정착촌 말레 아두뮴 Ma'aleh Adumim의 미쇼르 에도뮴Mishor Edomim 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 공단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감세와 노동법에 따른 규제



[이미지] 소다스트림 또한 BDS 운동의 주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

완화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소다스트림 창업자는 한 인터뷰에서 공장을 정착촌에 세운 이유가 낮은 부동산 가격과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112</sup>

소다스트림의 국내 수입은 (주)코리아테크가 담당하고 있다. 코리아테크는 생활용품 및 가정용품, 화장품 등을 수입하는 유통기업으로, 웹사이트 연혁란에 따르면 2006년 5월 소다스트림의 국내총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한다.<sup>113</sup> 현재 소다스트림은 GS 홈쇼핑, 옥션, 11번가 등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110 Fruit Banks <http://www.fruitbank.kr/> (방문일: 2011/11/23)

111 LS Networks <http://www.lsnetworks.com/>

112 WhoProfits (2011/03) A Case Study for Corporate Activity in Illegal Israeli Settlements <http://whoprofits.org/sites/default/files/WhoProfits-ProductioninSettlements-SodaStream.pdf> (방문일: 2012/07/28)

113 코리아테크 웹사이트 <http://www.coreatech.kr/company/history.aspx> (방문일: 2012/07/28)

## 7장 군사 교류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교류 관계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 때문인지 무기에 대한 기술 협력과 공급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두 정부의 협력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크게 '발전'한 계기는 역시 1993년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이라고 볼 수 있다.

### 7.1 냉전 체제 아래서의 양국 군사 교류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교류는 양국이 아직 정치적·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의 냉전 체제는 양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국 모두 서방 진영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 안전을 지키려 했고, 이런 공통의 전략을 통해 양국의 관계도 시작되었다.

야코프 코헨Yaacov Cohen에 따르면, 그런 입장에서 먼저 군사 교류의 길을 열고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수상인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이었다.<sup>114</sup> 벤-구리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원하고자 한국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방위군의 한반도 파병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측을 지지할지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노동당의 전신인 마팜Mapam당 등 반대 세력이 연합 정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교는 1961년에 당시 이스라엘 외

무부장관이었던 골다 메이어Golda Meir가 제안해 1962년 4월10일 수립되었다. 국교 수립은 양국이 각자 자기 나라를 승인해줄 우호적 국가들을 찾는 가운데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이유로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국교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서둘러 양국에 공관을 설치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이스라엘 대사관 설치를 미뤘다.

이러한 국면의 전환 계기는 베트남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계속 반대해온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미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수립된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정권은 동맹국을 끌어들이며 베트남 전쟁을 가속화해갔다. 여기에서 전쟁 참여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무대로 삼던 한국과 이스라엘의 접점이 생겼다.

이렇게 양국이 공유하는 야심 덕에 1967년 6월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당시 군참모총장이 내한했고, 이를 시작으로 양국 군사 협력의 문이 열렸다. 당시 협력은 주로 이스라엘이 한국에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한국은 갈망하던 이스라엘제 우지Uzi 기관단총을 공급받았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4차 중동 전쟁 때까지 노획한 아랍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을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한다.<sup>115</sup>

그러나 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석유 파동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친-아랍 외교로 입장을 전환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실망을 표하며 1978년 2월 서울의 주한 이스라엘

114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115 드가모프 (skillelix) (2011/2/26) "이스라엘과 한국군의 군사적 협력사례" <http://blog.naver.com/skillelix/40124236483> (방문일: 2011/11/30)

대사관을 폐쇄했다. 그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일단 냉각되었다.

## 7.2 오슬로 협정 이후 급속히 강화된 양국 군사 교류

1980년대 양국 관계는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걸돌았다. 당시 한국은 군사독재 정부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했다. 이스라엘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인티파다Intifada를 겪고 있었다. 즉 양국 모두 내정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91년 10월의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Madrid Middle East Peace Conference부터 1993년 8월의 오슬로 협정에 이르는 과정을 겪으며 양국의 국교도 급속히 회복되었다. 이 시기는 아랍 국가들에 의한 이른바 ‘아랍 보이콧’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양국은 1980년대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내부 정세를 갖춰가던 때였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무역·기술협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4년 11월에 체결된 한-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작으로 양국의 군사산업 협력도 크게 발전했다.

1995년 8월 27일, 양국 정부는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공동위는 정례적 회의 기구로서, 이를 계기로 군사기술의 산업화 방안에 대한 양국 간 정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9차례의 공동위가 열렸다.

###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 1차: 1996년 5월 XX일 (텔아비브)
- 2차: 1997년 5월 19일 (서울)\_ 이스라엘제 무기 도입, 품질보증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기술자료 및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 체결 추진, 정보체계화 기술협력 등 양국의 협력 가능 분야에 관해 토의

- 3차: 1999년 3월 XX일 (텔아비브)\_ 군수 교역시 필요한 품질보증협정에 서명, 한국산 군수물자 수출확대 등에 대해 토의, 양국 간 기술자료 및 과학기술자 교환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도 논의
- 4차: 200X년 X월 XX일 (불명)
- 5차: 200X년 X월 XX일 (불명)
- 6차: 2003년 11월 XX일 (서울)
- 7차: 2007년 1월 22일 (텔아비브)\_ 양국 간 협력 가능 사업을 검토·논의
- 8차: 2008년 8월 4일 (서울)\_ 품질보증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을 논의
- 9차: 2010년 5월 XX일 (이스라엘)\_ 양국 간 군수협력 현안 및 품질보증협정 개정

그리고 한국 국방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내에 무관부를 개설함으로써 상시적인 연락 채널을 확보했다. 또 아래와 같은 비정기적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기타 회의, 요인 방문 등]

- 1996년 1월 3일 에이탄 벤 엘리야후Eitan Ben Eliyahu 장군을 단장으로 한 이스라엘 대표단 내한. 양국 군사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논의
- 2001년 10월 12일 요시 벤 하난Yossi Ben Hanan 국방부 해외방산수출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스라엘 대표단 내한. 이역수 공군참모총장 방문
- 2002년 6월 XX일 이스라엘 기술진, 한-일 월드컵 정보시스템에 컨설팅 제공
- 2005년 11월 29일 한-이스라엘 방산협력회의(텔아비브)에서 한-이 양국 간 방산협력 현황과 발전 방안 협의
- 2010년 5월 6일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 공식 방문. 방산 협력 및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함께함



[이미지의 한국군이 구입한 무인항공기 중 하나인 엘빗 시스템스의 스카이라크 II

### 7.3 구체적인 무기거래

양국 군수산업분야의 협력은 양국이 준전시체제를 무기 수요의 계기로 삼아 서로 군수물자의 공급처가 됨과 동시에 실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미국에서 과도하게 군수물자를 수입하고 있다는 양국 공통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 공급처의 다양화와 무기 구입의 저렴화를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 Defence News를 인용한 2003년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이스라엘 군사장비 구매가 이스라엘 군사장비 및 무기류 총판매의 12%를 차지”했다.<sup>116</sup> 이는 이스라엘의 무기 거래에서 한국이 가진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Harretz를 인용한 2011년 『동아닷컴』의 기사에 따르면 “양국 간 연간 교역액 12억 5천만 달러 중 3분의 1 정도인 이스라엘의 한국 수출 물량 중 대부분이 국방 분야 거래”로, 무기 거래가 양국 관계를 크게 규정하는 요소임을 추측할 수 있다.<sup>117</sup>

또한 한국군은 양국의 무기가 대부분 미국제라는 공통점을 활용해, 이스라엘에 미제 재래 전투기의 리모델링을 맡기기도 했다.

#### [한국군이 구입·보유·도입 검토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무기들]

- 기관단총 우지Uzi [이스라엘군수산업IMI 제조] (모델은 미확인)
- 무인항공기UAV 하르피Harpy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IAI 제조]
- 무인항공기UAV 서처Searcher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IAI 제조]
- 무인항공기UAV 스카이라크 II Skylark II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 제조]
- 정밀타격유도무기 스파이크Spike NLOS 미사일 [라파엘Rafael 제조](계획 중)
- 공대지/지대지/대레이더 순항 미사일 델라일라 Delilah GL [이스라엘군수산업(IMI) 제조(계획 중)]
- 레이더경보수신기RWR SPS-1000(V)5 [엘이스라 ELISRA 제조]
- 조기경보레이더 슈퍼 그린파인Super Green Pine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 제조]
- 군사용 전자광학영상장비EO-X 콘돌 II Condor II [엘롭Elop 제조]
- 항공기 전자전 시스템 [엘이스라Elisra 제조](모델은 미확인)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봤을 때 양국의 군사 교류는 대부분 한국이 이스라엘의 군수품을 수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아래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가 발표한 그래프는 2008년 이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sup>118</sup>

『위클리 블리츠』 Weekly Blitz지의 한 기사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주요 무기 납품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sup>119</sup> 이 기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차장 권오봉은 “현재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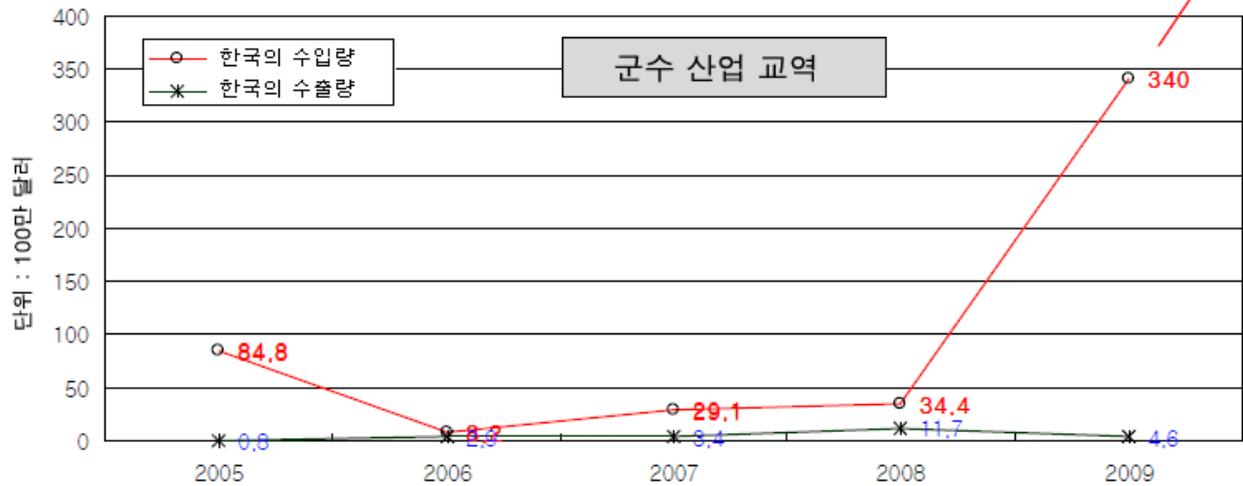
116 한겨레 (2003/11/18) “이스라엘 군사장비 한국수출 급증”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100007/2003/11/007100007200311182208189.html> (방문일: 2012/04/09)

117 동아일보 (2011/1/13) “韓 이스라엘 무기도입 최근 급증”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10112/33888087/1> (방문일: 2011/10/5)

118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ost...](http://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ost...) (방문일: 2011/09/16)

119 Weekly Blitz News Desk (2011/08/23)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to South Korea” <http://www.weeklyblitz.net/1677/israel-turning-into-main-arms-supplier-to-south> (방문일: 2011/09/16)

## 한-이 군수 산업 협력



황에서 한국의 방위 예산은 300억 달러, 군 예산은 100억 달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그린파인 레이더와 하르피 무인항공기를 구입했다.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원이 되었다”고 밝혔다.<sup>120</sup>

국방 예산의 증가와 무기 수입처의 다양화에 대한 한국의 욕망으로 미루어보건대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0 Ibid (방문일: 2011/09/16)

## 8장 경제 관계

1장에서 상술했듯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과 한국은 다양한 쌍무 협약을 체결하며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 왔다. 현재 협상 중인 FTA를 통해 앞으로 이런 협력 관계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8.1 한국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1998년 이스라엘과 한국은 민간 산업 부분에서의 「공동산업연구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합의서의 목표에 따라 2001년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The Korea Israel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Foundation, 이하 KORIL)이 만들어졌다. KORIL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산업 연구 및 개발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업들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 지원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KORIL 지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KORIL은 프로젝트 예산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프로젝트당 최고 상한 금액은 100만 달러이다. KORIL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제안된 147개 프로젝트 중 98개의 프로젝트에 약 338억원을 지원했다.<sup>121</sup>

KORIL에서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많은 이스라엘 기업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인종차별·식민화에 직접 연루된 공범자로 알려져 있다.

#### 테크메르 Techmer

121 KORIL “Approved Projects List”  
<http://www.korilrdf.or.kr/english/koril/index4.php?seq=4&subseq=1&PHPSESSID=41616...> (방문일: 2011/09/14)

2009년 KORIL은 한국 미도텍과 이스라엘 테크메르 Techmer 간의 전면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다.<sup>122</sup> 테크메르는 메르Mer 그룹 내 하나의 브랜드로서, 안보와 방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이며 팔레스타인 점령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테크메르는 동예루살렘 불법 정착촌에 장비를 제공한다. 점령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조사하는 NGO Who Profits(누가 이익을 보는가)에 따르면, 테크메르의 카메라는 서안 지구의 많은 검문소와 군사 기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테크메르는 동예루살렘의 이르 다비드Ir David(다비드의 도시) 정착촌 프로젝트에 ……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sup>123</sup>

#### 틸탄 시스템스 엔지니어링Tiltan Systems Engineering

2006년 KORIL은 한국의 가상 건축모델링 회사인 버츄얼 빌더스Virtual Builders와 이스라엘의 3D 맵핑 회사인 틸탄 시스템스 엔지니어링Tiltan Systems Engineering의 전면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다.<sup>124</sup> Who profits에 따르면, “틸탄 엔지니어링의 2D와 3D 지형 시각화 기술은 중요한 군사훈련, 공격 계획과 전투지휘에 적용된다. 틸탄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은 특히 이스라엘군의 시가전 대비용으로 서안 지구의 사실적 3D 모델을 개발했다.”<sup>125</sup>

122 Ibid (방문일: 2011/09/14)

123 Who Profits “Mer Group” <http://www.whoprofits.org/company/mer-group> (방문일: 2012/06/10)

124 KORIL “Approved Projects List”  
<http://www.korilrdf.or.kr/english/koril/index4.php?seq=4&subseq=1&PHPSESSID=41616...> (방문일: 2011/09/14)

125 Who Profits “Tiltan Systems Engineering” <http://www.whoprofits.org/company/tiltan-systems-engineering> (방문일: 2012/07/17)



[이미지10] KORIL의 공동기술 개발 절차

매트릭스 ITMatrix IT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은 탈탄 엔지니어링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매트릭스 IT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IT 기업 중 하나이며, 서안 지구의 불법 정착촌 모던 일릿Mod'in Illit에서 해외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sup>126</sup>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2005년 KORIL은 한국 기업 유니스과 이스라엘 기업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다. IAI는 스스로를 “.....군용·상업용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시스템 개발의 세계적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 IAI는 이스라엘 ‘제1의’ 항공우주산업과 군용기 제조사이다. IAI는 민간용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도 다음과 같은 많은 군수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무인항공기
2. 레이더, 전투기, 공중 조기경보기
3. 전자전, 첩보 및 통합보안, 신호정보수집, 통신 도청 및 통신전파방해
4. 전술탄도미사일
5. 미사일 등 첨단 무기

126 Who Profits “Matrix IT” <http://whoprofits.org/company/matrix-it> (방문일: 2012/07/17)

6. 위성, 지상국, 우주발사선
7. 고급 군용기와 헬리콥터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IAI가 생산한 무인항공기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수용품을 생산하고 군용기와 무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외에도, IAI는 분리장벽의 건설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sup>127</sup>

## 8.2 공동 투자기금

2010년 11월 이스라엘과 한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공동투자기금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포스트』지는 당시 “양국 관계는 현재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양국의 신기술 개발과 함께 더욱 우호적으로 될 수 있다”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의 말을 전했다.<sup>128</sup>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더 알려진 바는 없다.

## 8.3 한-이 FTA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2009년 5월에 열린 4차 한-이스라엘 공동위원회에서 한-이 FTA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을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FTA 추진을 요청해왔다.<sup>129</sup>

2009년 1월 30일 당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였던 이갈 B. 카스피Yigal B. Caspi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서 한-이 FTA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한-이 FTA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sup>130</sup>

127 Stop the Wall “Companies Building the Wall” <http://www.stophthewall.org/downloads/pdf/companiesbuildingwall.pdf> p.5

(방문일: 2011/09/14)

128 Jerusalem Post. Casman, G (2010/11/22) “Israel, South Korea sign MOU to assist companies”

<http://www.jpost.com/LandedPages/PrintArticle.aspx?id=196266> (방문일: 2011/09/14)

129 뉴시스 (2009/05/13) “외교부, 한-이스라엘 FTA협상 가능성 점검” <http://media.daum.net/economic/all/view.html?cateid=1038&newsid=20090513184311441&p=newsis> (방문일: 2011/09/14)

130 아주경제 (2009/01/30) “한-이스라엘, FTA 체결은 필수”

가자 침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된 그 인터뷰에서 알론 쉘레징거 Alon Shlesinger 상무관은 “이스라엘 경제는 이번 팔레스타인 분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FTA로 양국의 교역량도 늘고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한-이스라엘 FTA 민간공동연구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sup>131</sup> 3차에 거친 회의 끝에 2010년 8월 FTA 공동연구는 종료되었고,<sup>132</sup> 2010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sup>133</sup>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0년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협상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2010년 6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빈야민 벤-엘리에제르 Binyamin Ben-Eliezer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말까지 FTA가 서명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sup>134</sup> 그러나 2012년 현재에도 FTA 협상은 진행 중으로, 2012년 7월 방한한 다니 아얄론 Daniel Ayalon 외무차관은 내년 여름에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한다며, “군사 협력을 맺고 있는 한국을 입구 삼아 아시아 시장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sup>135</sup>

현재로서는 FTA 내용이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

양국의 무역의존적 경제구조 및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 구조를 감안 시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역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36</sup>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FTA의 결과로 무역과 투자 분야가 20~30%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sup>137</sup>

한-이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국가가 된다.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090130000037> (방문일: 2011/09/14)

131 외교통상부 (2010/05/26) “주이스라엘 대사관, 한-이스라엘 경제·통상 현황”  
<http://isr.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5334&seqno=748066> (방문일: 2011/11/23)

132 FTA Korea “한-이스라엘 FTA”  
[http://fta.korea.kr/kr/situation/ready/history.jsp?a\\_id=21](http://fta.korea.kr/kr/situation/ready/history.jsp?a_id=21) (방문일: 2011/11/23)

133 외교통상부가 FTA와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http://blog.naver.com/soldat1219/50115827601>

134 매일경제신문 (2010/06/10)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299958> (방문일: 2011/11/23)

135 중앙일보 (2012/07/27) “이스라엘, 아시아 첫 FTA 한국과 체결 희망”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882594](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882594) (방문일: 2012/08/04)

136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이스라엘 개황’ (2010/06/03)  
[http://mofaweb.mofat.go.kr/reg\\_report.nsf/webview01/07D02ECE7A9DB34649257737000C5159?opendocument](http://mofaweb.mofat.go.kr/reg_report.nsf/webview01/07D02ECE7A9DB34649257737000C5159?opendocument) (방문일: 2011/11/30)

137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ost...](http://www.emerics.org/posts/downloadAttach/83402.do.jsessionid...localhost...) (방문일: 2011/09/16)

## 9장 학술 교류

KORIL처럼(8장 참조)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술 교류도 연구 개발 프로젝트 형식의 과학 기술 협력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사실 2010년 12월 28일 양국 정부는 나노 과학과 생명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9개 선정해 각각 46만 달러씩 지원하기로 했다.<sup>138</sup> 선정된 프로젝트 참여 기관은 한국의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 대학교 등과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교, 바이츠만Weizmann 대학교, 텔아비브 대학교 등이다.<sup>139</sup> 이스라엘의 세 기관은 이스라엘의 점령·식민화·인종차별 정책에 조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2010년 방한 당시 테크니온과 카이스트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 9.1 테크니온의 점령·식민화·인종 차별에의 공모

하이파에 위치한 테크니온은 이스라엘의 일류 공과 대학이다. 1924년 설립된 테크니온은 바이츠만 대학과 함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설립된 소수의 대학 중 하나로 2012년 현재 테크니온은 12,856명의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다.<sup>140</sup> 테크니온은 이스라엘 군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어 비판받아왔다. 실제로 켈러Keller의 지적처럼 “테크니온은 이스라엘 군에 자원 입대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기 생산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무기 기술을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무기들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테크니온은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과 라파엘Rafael 등 수많은 무기 개발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엘빗 시스템과의 관계는 주로 연구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엘빗 시스템스는 2008년 테크니온 대학생들에게 향후 5년간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테크니온과 엘빗은 공동연구센터 “시각 시스템 연구 계획”Visions Systems Research Initiative을 설립했다.<sup>141</sup> 이들이 행하는 연구에는 눈의 움직임을 쫓아 컴퓨터로 시각화하는 것도 있다.<sup>142</sup>

테크니온의 학장은 엘빗과의 동업 관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연구 센터의 설립은 테크니온이 엘빗 시스템스, 나아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산업과 맺어온 오랜 동업 관계의 중요한 한 걸음이다. 기술적 도전 과제가 늘어가고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들은(기술적 도전 과제도,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들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138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12/30) “Korea-Israel S&T Cooperation Projects” <http://www.mest.go.kr/web/42207/en/board/enview.do?bbsId=265&pageNo=10&currentPage=3&boardSeq=20110&mode=view> (방문일: 2011/09/21)

139 Keller, U “The Economy of the Occupation: Academic Boycott of Israel” <http://www.alternativenews.org/english/index.php/topics/economy-of-the-occupation/2223-the-economy-of-the-occupation-23-24-academic-boycott-of-israel> (방문일: 2011/09/13)

140 Technion Division of Public Affairs and Resource Management

“About Technion: Fast Facts” <http://www1.technion.ac.il/en/about> (방문일: 2012/08/04)

141 Hayadan (2008/06/06) “Elbit Systems And The Technion Found A New Research Center For Optics Systems” <http://www.hayadan.org.il/wp/elbit-donate-laboratory-to-the-technion-1606085/> (방문일: 2011/09/21)

142 Tadamon (2010/10/26) “Structures of Oppression: Why McGill and Concordia Universities must sever their links with the 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tadamon.ca/wp-content/uploads/Technion-English.pdf> (방문일: 2011/09/21)

서 테크니온에게는 더 강력하고 순조롭게 산학 협동 연구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sup>143</sup>

엘빗 시스템스의 최고경영자 조셉 아커만 Joseph Ackerman은 테크니온과의 관계가 방산업체들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내다봤다.<sup>144</sup>

테크니온 졸업생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방산업체들에서 일하는데, 엘빗 시스템스도 예외는 아니다. 엘빗은 테크니온에서 적극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며 상당수의 테크니온 졸업생들이 엘빗에서 일하고 있다.<sup>145</sup>

테크니온은 다른 방산업체 라파엘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6년 테크니온은 라파엘과 함께 5년 넘게 건설한 2스테이지 로켓을 발사했다.<sup>146</sup> 이 프로젝트는 테크니온 대학 교수 알론 개니 Alon Gany와 라파엘의 이츠하크 그린버그 Yitzhak Greenberg가 감독했다. 그린버그 자신이 테크니온 졸업생이라는 점을 보면, 라파엘과 테크니온의 단단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그려진다.

엘빗과 맺은 관계와 마찬가지로, 테크니온은 학생들이 라파엘에 취직하도록 장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산업체의 취업 설명회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테크니온은 미래 라파엘의 경영자를 양성하는 3년짜리 MBA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sup>147</sup> 이 사실은 대학과 무기 산업의 끊임없는 순환 관계를 입증한다. 테크니온이 엘빗이나 라파엘 등과 함께 공동 연구 개발하는 기술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가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테크니온은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무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무기가 포함된다.

143 Focus: Technion Magazine (2008/11) "Out of Sight" <http://www.focus.technion.ac.il/Nov08/technologyTransferStory3.htm> (방문일: 2011/09/21)

144 Technion "Elbit establishes Vision Research Center" <http://webee.technion.ac.il/news/Elbit-establishes-Vision-Systems-Research-Center> (방문일: 2011/09/22)

145 Ibid (방문일: 2011/09/22)

146 J Siegal Izkovitch (2006/05/10) "Technion launches Ram-Engine Rocket" <http://www.jpost.com/HealthAndSci-Tech/ScienceAndEnvironment/Article.aspx?id=21379> (방문일: 2011/09/21)

147 Tadamon (2010/10/26) "Structures of Oppression: Why McGill and Concordia Universities must sever their links with the 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http://www.tadamon.ca/wp-content/uploads/Technion-English.pdf> p.5 (방문일: 2011/09/21)



[이미지11] 테크니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라파엘의 취업 설명회 광고 포스터. 테크니온은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방산업체에서 일할 것을 장려한다



[이미지12] D-9 불도저가 가자의 라디오 방송국을 파괴하고 있다

### D9 불도저(원격 조종 장치)

실제 불도저는 미국에서 제조되지만 이스라엘방위군과 제휴한 테크니온 학생들이 불도저를 위한 원격 조종 장치를 설계했다. D-9 불도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 장치는 운전자 없이 팔레스타인인의 가옥을 파괴할 수 있게 해준

다.

## 로이The ROEE

로이ROEE는 테크니온이 개발한 전지형全地形 만능 경차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디펜스 업데이트』 Defence Update지는 ROEE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ROEE를 사용하여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거나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총기 및 센서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어 작전 및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ROEE는 전면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매복, 적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 감시 및 확보 등의 안보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sup>148</sup>

## Rahfan

Rahfan은 테크니온의 컴퓨터 과학 학부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로봇 헬기로 추적·정찰·특수 작전에 사용된다.<sup>149</sup>

## 무인정찰기(드론, UAVs)

테크니온 학생들은 최근 유도탄 폭발력을 장착한 무인정찰기의 고안 및 실험을 끝냈다.<sup>150</sup>

## 로봇 뱀

현재 테크니온 연구진은 로봇 뱀을 개발 중이며, 이스라엘방위군의 국방 연구개발 부서의 도시 지형 로봇 프로그램에서 이 로봇을 실험 중이다. 이스라엘방위군의 로봇 담당국인 토지 시스템 국의 첨단 개념 지부의 가비 돌레스코



[이미지13] 카이스트를 방문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2010년 방한 당시 페레스는 카이스트와테크니온의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Gabi Dobresco 중령은 이 첩보 로봇이 시가전에 사용될 것이며 “눈에 띄지 않게 적지에 침입하여 목표물을 파악하고 폭발물을 설치·폭발을 일으켜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sup>151</sup>

## 9.2 테크니온과 카이스트KAIST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테크니온이 현재 맺고 있는 관계는 매우 미미하나, 양측이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카이스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6월 9일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카이스트를 방문했다. 페레스는 우주,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에서 양 대학의 협력을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sup>152</sup>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은 이스라엘 대학과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카이스트와 테크니온의 더 많은 공동 연구를 기대하는 테크니온의 열망

148 Defense Update “Defense Update ROEE Light Tele-Operated Robotic Weapon ATV Platform: Technion Land Systems Division, Israel” <http://defense-update.com/products/r/roee.htm> (방문일: 2011/09/22)

149 Technion University Press Release (2009/12/03) “Technion Students and Researchers Build Rahfan: A Micro-robotic Helicopter that Navigates, Photographs and Maneuvers Independently,” [http://www1.technion.ac.il/\\_local/includes/blocks/news-items/091130-cs/news-item-en.htm](http://www1.technion.ac.il/_local/includes/blocks/news-items/091130-cs/news-item-en.htm) (방문일: 2011/09/22)

150 British Technion Society (2011/03/13) “Technion Students Build and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apable of Carrying a Payload” <http://www.britishtechnionsociety.org/ReadNews275.aspx> (방문일: 2011/09/22)

151 Defense Update “Smaller, More Powerful Snake Robot Demonstrated by Technion Lab”

[http://defense-update.com/wp/20101110\\_snake\\_robot\\_brml.html](http://defense-update.com/wp/20101110_snake_robot_brml.html) (방문일: 2011/09/22)

152 KAIST “President of Israel visited KAIST on June 9, 2010”

[http://www.kaist.ac.kr/english/01\\_about/06\\_news\\_01.php?req\\_P=bv&req\\_BIDX=10&req\\_BNM=ed\\_news&pt=17&req\\_VI=277](http://www.kaist.ac.kr/english/01_about/06_news_01.php?req_P=bv&req_BIDX=10&req_BNM=ed_news&pt=17&req_VI=277) (방문일: 2011/09/22)



[이미지14]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대학이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과 단교할 것을 요청한 400개 단체와 사람들 중 하나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

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sup>153</sup>

이스라엘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 단절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11년 3월 23일,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대학은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과 25년간 지속된 교류를 끊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의 주요 대학들과 지식인, 공인들 총 400개 단체와 사람들의 탄원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이 들 중에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있다.<sup>154</sup>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KAIST의 설립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KAIST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공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sup>155</sup>

가령 이 계획이 단지 과학적 야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본주의 가치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

153 Ibid (방문일: 2011/09/22)

154 Laing, A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ean/southafrica/8404451/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06)

155 서남표 (2011/09/26) “신년 인사 및 2011년에 대한 고찰”  
[http://www.kaist.ac.kr/sub01/sub01\\_01\\_04.html?req\\_P=bv&req\\_BIDX=2&req\\_BNM=intr\\_speech&req\\_VI=3446&req\\_PC=0](http://www.kaist.ac.kr/sub01/sub01_01_04.html?req_P=bv&req_BIDX=2&req_BNM=intr_speech&req_VI=3446&req_PC=0) (방문일: 2012/04/09)

# 10장 성지 순례

1990년대에는 아시아 전역의 이스라엘 방문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한국인이 이스라엘을 찾았다.<sup>156</sup>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 순례자였다.

이스라엘의 주된 수입원은 관광 산업이며 그 핵심에는 성지 순례가 있다.

## 10.1 성지 발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성경 속 유적들이 활발히 발굴되었다. 1950년대에 불어닥친 유적지 발굴 열풍은 전세계에서 온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의 민족(국민) 공통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민자가 땅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정치적·종교적·군사적 동질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만들어냈다. 이 유적지 발굴에 성지 발굴이 포함되어 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점령한 이후, 이스라엘군은 발굴 사무소를 만들어 본격적인 유적 발굴에 나섰다. 이는 점령을 공고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성경 속 고대 도시 실로Shiloh가 있던 자리에 유적 발굴 명목으로 들어섰던 임시 캠프는 현재 서안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착촌 키르벳 세일룬Khirbet Seilun이 되었다. 또 다른 고대 도시 베크엘Beth El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큰 정착촌에는 거대한 군사기지가 포진해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1978년에 제정한 골동품법에 의거해 유적 발굴을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의 땅을 몰수하고 있다. 이는 제네바협약과 헤이그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sup>157</sup>

156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157 Ghattas J. Sayej (2010) “Palestinian Archaeology: Knowledge,

## 10.2 베들레헴 기독교인 말살 정책

“베들레헴을 서서히 교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

-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주교, 2005년

베들레헴은 서안 지구의 도시다. 베들레헴은 예수의 출생지로 기독교의 주요 성지이며 예루살렘과 역사적·종교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37%의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이 소거당했고, 1967년 점령 이후 1994년까지 인구의 20%가 감소했으며, 2000~2004년 사이 다시 기독교 인구 10%가 감소하여,<sup>158</sup> 1947년 베들레헴 인구의 75%를 점하던 기독교인은 1998년 23%로 급격히 감소했다.<sup>159</sup>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점령이 만들어낸 경제적 기회 박탈을 꼽을 수 있다. 관광 산업은 베들레헴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베들레헴 인구의 25%가 관광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고, 관광 수입이 도시 경제의 65%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입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었다.<sup>160</sup> 그러나

Awareness and Cultural Heritage”,

<http://www.presentpasts.info/article/view/pp.22/32> (방문일: 2011/11/28)

158 Open Bethlehem “Bethlehem today: A state of Emergency” <http://openbethlehem.org/index.php?>

[option=com\\_docman&task=doc\\_download&gid=4&Itemid=28](http://openbethlehem.org/index.php?option=com_docman&task=doc_download&gid=4&Itemid=28) (방문일: 2011/11/28)

159 Andrea Pacini (1998) Socio-Political and Community Dynamics of Arab Christians in Jordan, Israel, and the Autonomous Palestinian Territories. Clarendon Press. pp. 282

160 Aljazeera (2007/12/25) “Bethlehem’s Struggle Continues”



[이미지15] 점령지 서안 지구의 정착민 전용 도로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을 8m 높이의 분리장벽으로 둘러막아 예루살렘을 오고가는 길을 차단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 중인 정착촌과 정착민 전용 도로를 통해 베들레헴 안에서의 이동도 가로막았다.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려면 검문소를 2번 이상 거쳐야 하고, 베들레헴을 벗어나려면 철제 회전문을 통과하고 두 번의 검색대를 거친 다음 다시 철제 회전문을 지나 장벽을 건너야 한다.<sup>161</sup>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코스를 이용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쪽 뺀 정착민 전용 도로를 달리게 된다. 성지 순례 코스들은 보통 20분에서 2시간 사이 동안 베들레헴의 교회와 성지 몇 군데를 돌아보고 다시 이스라엘 버스를 타고 나오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때문에 순례자는 베들레헴에서 숙박하거나 식사하거나 기념품을 사는 등의 소비를 할 기회가 거의 없다.<sup>162</sup>

이스라엘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베들레헴 방문자도 증

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정책과 경제 활동 기회 박탈로 베들레헴의 기독교 공동체는 점점 해체되고 있으며, 급격한 해체 속도로 인해 15년 내에 베들레헴의 기독교 인구가 아예 사라지리라는 예측도 있다.<sup>163</sup>

“다른 성지들이 보석이라면 예루살렘은 보석이 박힌 왕관과 같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발행한 성지 순례 소개 브로슈어 「ISRAEL THE HOLY LAND」에서 인용

이스라엘 관광청에 따르면 방문객이 가장 많은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2010년 12월 28일 현재 전체 여행자의 77%가 통곡의 벽을, 61%가 성묘교회를 찾았다. 두 곳 모두 동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 있는 성지이다.<sup>164</sup>

스타스 미세즈니코프 Stas Misezhnikov 이스라엘 관광청장은 전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며 따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입지를 성지로 공

<http://www.aljazeera.com/news/middleeast/2007/12/2008525184727570657.html> (방문일: 2011/11/28)

161 Negotiations Affairs Department “STRANGLING BETHLEHEM, FORECLOSING PEACE”, (2005) <http://www.nad-plo.org/etemplate.php?id=66> (방문일: 2012/04/09)

162 ENI News “Bethlehem visitor numbers soar in 2008 says Israel” <http://www.eni.ch/featured/article.php?id=2500> (방문일: 2011/11/28)

163 Catholic Herald (2009/12/24) “Boycott Israeli tourism” [http://www.catholic herald.com/opinions/detail.html?sub\\_id=12141](http://www.catholic herald.com/opinions/detail.html?sub_id=12141) (방문일: 2011/11/28)

164 Shalom Life (2010/12/28) “Tourism Boom enjoyed by Israel” <http://www.shalomlife.com/news/14367/tourism-boom-enjoyed-by-israel/> (방문일: 2011/11/28)

고히 하고자 했다.<sup>165</sup>

동예루살렘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67년 이스라엘에 점령당했고, UN은 안보리 결의안 242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980년 7월 30일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Knesset)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시 UN은 안보리 결의안 478을 통해 이 법은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팔레스타인 전역에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스라엘의 유대화 계획은 특히 동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예루살렘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세 종교의 주요한 유적지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 특히 동예루살렘에는 구시가지와 켄셋마네, 예수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무덤 등 기독교 성지 순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장소들이 있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된 수입원이다.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 높고 다양한 점령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10.3 이스라엘 관광 산업과 한국인 성지 순례

2010년 총 여행자 345만 명을 달성한 이스라엘 관광 산업에서 발생한 조세 수입은 4억 달러가 넘는다.

한국인 이스라엘 방문자 수와 이스라엘인 한국 방문자 수는 극명히 대비된다. 2007년 33,925명의 한국인이 이스라엘을 찾은 반면 한국을 찾은 이스라엘인은 6,757명에 불과했다. 2008년에는 각각 37,500명과 7,095명이었다. 이러한 비대칭을 만드는 것은 한국인 성지 순례자들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 성지 순례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접경한 요르단과 최근 성지 순례자가 급증한 인도와 함께 아시아 지역 성지 순례자 수 1~2위를 다툰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된 2차 인티파다 기간 동안 전체 이스라엘 방문자가 줄어든 만큼 한국인 방문자도 감소했지만 2004년부터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표1] 2003-2010년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인 수

	총계	여행자		일일 방문자		
		총	경로		총	육로
			항공	육로		
2010	38400	30000	13900	16100	8400	8400
2009	21000	17300	10300	7000	3700	3600
2008	37500	30800	10500	20300	6800	6600

	총계	항공	배	육로
2007	33925	8679	0	25246
2006	28008	6886	1	21121
2005	25886	6512	6	19368
2004	18503	6635	1	11866
2003	2104	809	0	1296

\* 출처: 이스라엘 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www1.cbs.gov.il>)

\* 2007년까지는 국가별 일일 방문자 통계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

\* 2008년부터는 100명 단위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여행자 통계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아시아인 중 한국인 방문자가 가장 많다. 2006년 아시아에서 141,546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중 한국인 방문자는 28,008명이었다. 2007년에는 175,382명 중 33,925명, 2008년에는 220,100명 중 37,500명이 한국인이었다.

2006년 7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는데, 한국인 방문자는 오히려 2005년보다 2,122명 증가했다. 이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아시아인이 2005년 146,721명에서 2006년 141,546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2008년은 2000년에 이스라엘 전체 방문자 수가 정점을 찍은 후 8년만에 방문자 기록을 경신한 해다.<sup>166</sup> 또한 2008년은 대한항공이 텔아비브 취항을 재개한 해이기도 하다.

2009년에는 전체 이스라엘 방문자 수가 줄었는데, 이는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자행된 가자 침공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통계청도 침공 여파로 2009년 상반기에 방문자가 줄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165 Ynet "2010: Record year for tourism", <http://www.ynetnews.com/articles/0,7340,L-4005177,00.html> (방문일: 2011/11/28)

166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1/01/12) "Record Number of Tourists in Israel Almost 3.5 Million Visitor Arrivals in 2010", [http://www.cbs.gov.il/hodaot2011n/28\\_11\\_005e.pdf](http://www.cbs.gov.il/hodaot2011n/28_11_005e.pdf) (방문일: 2011/11/28)

[표2] 2008년 7~11월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인 수

	총계	항공	육로
7월	1756	737	1019
8월	1974	559	1415
9월	2483	1059	1424
10월	2500	1500	1100
11월	2100	1200	900

\* 출처: 이스라엘 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www1.cbs.gov.il>)

\* 총계는 일일 방문(Day visit)을 제외한 여행자(Tourist) 통계임

## 10.4 대한항공, 이스라엘 취항으로 성지순례 완성

대한항공은 1995년 11월 이스라엘 취항을 시작했지만 1997년 말 발발한 한국 경제 위기를 이유로 1998년 2월 취항을 중단했다. 그 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꾸준히 증가했고 2008년 9월 25일, 대한항공은 주 3회 이스라엘 재취항을 시작했다. 이때 대한항공이 낸 한국어 보도자료 제목이 ‘대한항공, 이스라엘 취항으로 성지순례 완성’이었다.<sup>167</sup> 또한 “나사렛, 예루살렘, 갈릴리, 요단강 당신과 세계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로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라디오 광고를 통해 대한항공은 텔아비브 취항이 정확하게 성지 순례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08년 9월 25일 대한항공이 텔아비브 취항을 재개한 후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물론 상술했듯 2009년 가자 침공의 여파로 이스라엘 방문자가 줄어들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10년에는 이스라엘 총 방문자 수가 정점을 찍었고 한국인 방문자 수 역시 기록을 경신했다.

## 10.5 성지 순례 유치

이스라엘 경제에서 성지 순례 산업이 접하는 위상만큼

167 한경닷컴 (2009/09/25) "대한항공, 이스라엘 취항으로 성지순례 완성" <http://pr.hankyung.com/newsRead.php?md=A01&tm=1&no=361359> (방문일: 2011/11/30)

성지 순례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이스라엘 관광청은 최근 몇 년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관광청과 함께하는 교회지도자 성지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세미나 외에도 목사, 신부 등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가이드와 차량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sup>168</sup>

이스라엘 관광청은 서울에 관광청 사무소를 두고,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제공하며,<sup>169</sup> 이스라엘 관광, 특히 성지 순례에 관련된 소책자를 발간하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여행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성지 순례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 순례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지 순례 산업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성지를 방문할 때조차 대부분의 수입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관광 산업을 위해 성지 발굴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지 발굴을 핑계로 땅을 몰수하고 그곳에 정착민을 이주시키는 등 점령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성지 순례는 팔레스타인인의 거주권 박탈, 가옥 파괴 등 점령 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68 기독교인의 세상 (2010/08/17)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더 집중”

<http://www.21cifm.org/chnet2/board/view.php?id=27&code=p34> (방문일: 2011/11/28)

169 <http://www.israel.co.kr>

[이미지 출처]

[이미지1] 알자지라 영상 캡처 <http://cc.aljazeera.net/asset/language/english/gaza-white-phosphorous>

[이미지2]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http://www.flickr.com/photos/ismpalestine/3193575879/>

[이미지3] [http://www.flights.com.br/?action=show\\_custom&id=15&cat=6](http://www.flights.com.br/?action=show_custom&id=15&cat=6)

[이미지4] snapshot from video "Israeli Troops Demolishing Houses.. By haithmkitab @gmail.com 24.11.2011,Beit Hanina, Jerusalem" <http://youtu.be/1MLDEQ00-IA>

[이미지5] AnamnalQuds.Com <http://anamnalquds.com/?p=9012>

[이미지6] Corporate Watch <http://corporateoccupation.wordpress.com/2010/03/25/corporations-in-katzerin-industrial-zone-part-three/>

[이미지7] CODEPINK "Stolen Beauty" <http://www.stolenbeauty.org/article.php?id=495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ile:Skylark\\_mk2.jpg](http://en.wikipedia.org/wiki/File:Skylark_mk2.jpg)

[이미지8]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는 모임(일본) "Stop Sodastream" <http://d.hatena.ne.jp/stop-sodastream/>

[이미지9]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ile:Skylark\\_mk2.jpg](http://en.wikipedia.org/wiki/File:Skylark_mk2.jpg)

[이미지10]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브로슈어 [http://www.koril-rdf.or.kr/index\\_korea.php](http://www.koril-rdf.or.kr/index_korea.php)

[이미지11] 테크니온 <http://www.cs.technion.ac.il/news/2011/432/>

[이미지12] <http://terrasol.home.igc.org/mideast/bulldozers.htm>

[이미지13] 카이스트 [http://www.kaist.ac.kr/english/01\\_about/06\\_news\\_01.php?req\\_P=bv&req\\_BIDX=10&req\\_BNM=ed\\_news&pt=17&req\\_VI=2777](http://www.kaist.ac.kr/english/01_about/06_news_01.php?req_P=bv&req_BIDX=10&req_BNM=ed_news&pt=17&req_VI=2777)

[이미지14]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ile:Desmond\\_tutu\\_20070607\\_2.jpg](http://en.wikipedia.org/wiki/File:Desmond_tutu_20070607_2.jpg)

[이미지15] Understanding United Methodist Divestment <http://unitedmethodistdivestment.com/IsraelPractApartheid.html>